

남가주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 오찬' 행사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28일 Los Angeles 근교, City of Industry에 위치한 Pacific Palms Resort에서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성주경, 상대 68) 주최로 원로선배 초청 오찬행사가 열렸다. 입학한지 50년 이상된 원로선배(67학번 이전)들을 초대한 이 행사는 각 단과대 동창회와 후배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2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017년 들어 제일 많은 동문들이 모인 행사였다. 이 원로선배 초청행사는 10여년 전에 흥광식(전 공대회장, 62) 동문이 처음 공대 주최로 시작하였고, 2015년 박해옥(전 총동창회장, 간호대69) 회장이 총동창회 차원으로 확대시켰으며, 2016년 김병연 회장에 이어 올해 3회째로 계속된 것이다.

유병원(상대 76) 총무국장의 사회로 1부 순서가 시작되어 교가 제창이 있었고, 40대 학번인 김영기(약대 46), 이동영(문리대 46) 선배님 소개에 이어 단과대학별 소개가 있었다.

성주경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원로 선배님을 위해 시간적 배려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총 300명정도 예상했는데 동문 부부 등 28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미대 경매전 작품을 중심으로 준비한 달력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책을 출간한 동문들이 참석한 동문들께 기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원(전총동창회장, 의대 53) 상임이사의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저는 지금도 활동하며 원로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 제가 원로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노년의 개념이 바뀌어 65세도 젊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3고가 있잖아요? 외롭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 세가지를 잘 견디어 내시고, 동문들 모두 Well age, Well being, Well dying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을 조무상(법대 70) IT위원장이 수고하였다. 이어 점심식사 후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의 책을 기부해 준 동문 저자들 소개가 있었다. 저자들은 박윤자(문리대 59), 이원택(의대 65), 김수영(사대57), 차종환(전 총동창회장, 사대 54), 장소현(미대 64), 강신용, 김영애(Mrs. 김성환-의대 65), 조만연(상대 58), 조옥동(사대 58), 이정아(가정대 73) 동문 등이다.

다음 2부로 계속되어 이원영(문리대 81) 동문의 “무병장수 건강 식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 식민지를 벗어나 자신이 건강의 주인이 되자. 소생체 위주로 식단을 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의 이탈이다.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소식(적게 먹을 것), 생식(날 것을 먹을 것), 채식(채식 위주로 할 것)이다.”

다음은 홍선례 (음대 70, 문화위원장) 동문의 사회로 3부 소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첫번째 순서로 최혜성(음대 99) 동문의 플루트 솔로 연주가 있었다. Francois Borne 작곡 “Carmen Fantasy”였는데, 피아노 반주는 제갈소망이 맡았다.

다음은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의 피아노 솔로, F. Chopin의 “Polonaise in A flat Major, Op. 53”로 그 박력있고 신들린 연주하는 동문들을 압도하였다. 이어 합창단이 김효근 작곡 “눈”, 정채준 작곡 “추심”, 두곡의 합창을 연주하였다.

이어 2008년에 창단되어 한국의 전통음악을 전파하며, 우리의 전통음악과 동서양의 음악을 접목시켜 활약하는 전통창작그룹 “해밀”의 국악 순서로 이어졌다. 첫곡은 “풍년가”,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곡이다. 다음 “액막이”는 동서남북 중앙 액을 막아주는 지신뱀기 (Page 6으로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동창회비(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항철 (법대 57)
논설 위원장

중국의 패권주의와 한국의 사드 배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중국에게 3년 약속을 하였다고 한국신문들은 보도하였는데,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안 함, 둘째, 한미일 군사 동맹 불참, 셋째,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참여 불가로서 구성되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부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합의서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는 아쉬운 해명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자주외교라고 한국에서는 표명하며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탈피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의 가장 큰 강대국이 될 중국과 친밀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진보파들의 주장이다. 이런 사고 방식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인 것같이 훌륭하게 보일 수 있으나 현실과 정세를 감주안하면 실패의 외교 정책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쪽이 한국에게 중요한가, 어느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국내외 정치적 목적과 연결시켜서 결정한다면 외교 정책에 큰 비극과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소위 한국의 진보파라고 지칭하는 정치가들은 보수파들이 한미 동맹관계를 신봉하나 그들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치중하는 것이 또한 진보적이고 반미 감정이 진한 계층에게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한 지도자나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했을 때의 파멸적 결과는 이미 19세기 후반 조선 왕조의 경험에 보여준다. 물론 한국은 자주 외교를

하여야되나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현재 자주 외교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등소평 통치이후로 경제면에서 시장 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아직도 비 민주적 공산당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달의 중국 주석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회의에서 다시 5년간의 주석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다른 중국의 전 주석들과는 달리 그의 후계자도 지명 안했다



한 모택동 주석과 같은 동급으로 그의 이념과 이론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모든 중국 공립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기로 결정되었다.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중국을 우리의 후원국으로 북한에게 핵폭탄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중국은 학계에서도 정부의 지원 아래 “동북공정”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 주장에 의하면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종속국으로 중국의 한부분인 지방자치 왕국 정도였다는 것이다. 자기네 치야를 보호하는 입술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아마 그들은 북한 땅이 과거 자기네 영토였으므로 중

국이 지배해야한다고 할지 모른다. 벌써 북한 광산권의 80%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교역의 90%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외교사에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이 정통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에도 중국은 남쪽 바다에 모든 국가들이 자유로히 항해할 수 있는 공해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구축하여 그들의 해양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과 해양 영토 확대 문제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이고 패권적인 중국의 영향을 우리는 우려하며 봐야한다. 오스트렐리아, 일본, 인도, 베트남, 미국 등과 한국은 이런 중국의 패권, 팽창주의를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후원국으로 추종하



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 호전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이 고립화되어 가고 많은 나라에서 반미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세계국가가 현재 민주주의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정치 구조를 모방하며 민주체제를 성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친미정책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던 미국의 과거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링컨 등의 지도자들의 민주 정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경제대국이 되더라도 정치적 민주화 없이는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폭탄과 미

사일을 저지시키지 못하였으며 김정은은 UN 안보리 제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벌써 핵폭탄을 6번째 폭발시켰고 9번째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4천5백 만의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하여 더 적극적 전략으로 북한의 독재자와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안보 목적으로 배치한 사드 미사일은 주로 방어적 방법이며 공격용이 아닌데도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 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주권국가인가를 의심케 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한중합의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측에 협력적 미사일(MD)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은 20여개의 핵폭탄과 수천대의 대포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으며 여자하면 공격할텐데, 이런 공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이상의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설치 못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수천 만 한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과 그 위정자들과 대화, 접촉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위험성에도 안보 불감증에 걸린 많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더 설득시켜야 하며, 67년 전의 6.25 전쟁에서 수백만의 국민이 북한 정권과 중국 개입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사드 구축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핵폭탄 공격발사를 준비할 때는 한국도 선제 공격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독재자와 그 후원국인 중국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국으로 또 후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후원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도 세계 평화와 지역 평화를 위해서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필요하며 미국, 일본의 후원 만이 아니라 인도, 오스트렐리아, 베트남, 필리핀도 지역적인 안보를 위한 후원국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재미미한 교수협회 회장 전 쉐파드 대학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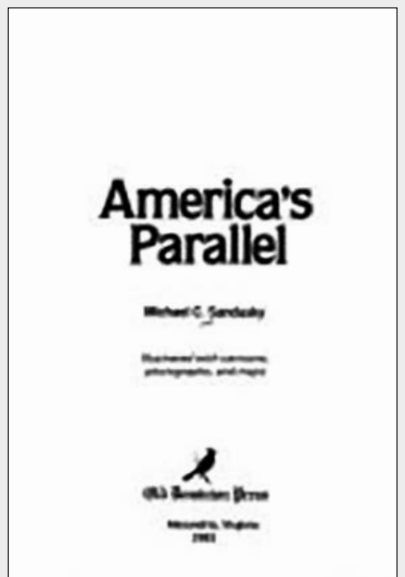


고병철 (법대 59졸)
논설 위원

막을 수 있었던 한반도 분단

필자는 얼마 전에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소련의 태평양전쟁 개입이후, 불가피 했다는 통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Truman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을 북위 41도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저자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발간된 America's Parallel(Michael C.



Sandusky, Old Dominion Press, 1983)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공개된(Declassified) 미국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수뇌들은 여러번 회담을 갖게되는데 -Cairo, Teheran, Yalta, the Potsdam- 전쟁이 종료되기 직전에 열린 Potsdam 회담에 Truman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Stalin

과 Churchill 및 그를 교체한 Attlee와 태평양 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Truman은 회의가 개시하기 이전에 Berlin을 방문하게되는데 그곳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의 약탈(looting)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Stalin의 언동을 관찰하면서 그는 전후의 소련의 역할을 최소화해 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은 소련이 8월 8일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 동북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개시한 후인 8월 12일에 그가 미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메모에 반영된다. 그 메모에서 Truman은 일본이 항복한 후에 만일 소련군이 이미 점령을 안했으면 중국의 대련(大連)과 한반도의 항구를 미군이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그 의견에 동의했으나 MacArthur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MacArthur는 일본 점령이 최우선 순위이고 미군 전력은 모두 일본에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함경도에 진입한 소련군은 예상외로 치열한 일본군의 저항때문에 8월 14일에 청진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 8월 15일 현재 소련군은 북위 41도에서 정제된 것이었다. 만일 Truman의 희망을 존중하여 미군 1개 사단이 투입되었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MacArthur는 그 후, 한국 전쟁에서 UN군 총사령관이 되어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게되지만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Truman을 군 통치권자(Commander-in-chief)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자부심과 오만이 낳은 역사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트럼프-공화당의 감세 정책

지난 11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공화당 의회의원들이 찬성한 감세 법안을 발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감세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기업회사 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감세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모든 가정에게 영향을 미칠 소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7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조를 39.6%, 35%, 25%, 12% 등 4개구분으로 변경하여 소득세의 얼마만의 감면을 하자는 요지이다. 셋째, 앞으로 10년동안 연방정부의 세금수익을 \$1.5 trillion 줄인다는 내용이다.

어느 정부든지 감세정책은 국민의 생활 보조를 통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요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활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민경제성장에 얼마만의 영향을 결과할지가 경제정책상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2개의 대조적인 의견인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논거를 탐구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감세정책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찬성의견이다. 그 근거는 3가지인데, 하나의 근거는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3년-5년내에 임금이 \$3,000-\$7,000 올라 2016년 기준 가정 중간소득 \$59,000 가 5% 상승하게 되어 국민소비가 상승하여 국민소비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는 GDP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둘의 근거는 기업세율의 감세로 기업투자자와 기업가정신이 상승하여 경제성장을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셋의 근거는 1970년대 석유위기로 침체하였던 국민

경제가 1981년 리건 대통령의 감세정책(공급측경제, Supply Side Economy)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한 사례이다.

둘째, 감세정책이 과연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할 것인지 회의하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회의하고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는 3가지이다. 하나의 반대근거는 세율과 경제성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의회연구소 제인 그라벨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50년대 개인소득세율이 지금의 39.6% 보다 훨씬 높은 85%이었는데 국민경제성장은 지금의 2%보다 두배 높은 4%이었다는 통계로 세율과 국민경제성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의 반대근거는 기업의 감세로 부풀어진 기업의 현금자본을 단순히 자본이 늘었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린톤 대통령의 재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이었던 로렌스 서머 하바드대경제학자가 기업투자자의 상승은 현금자본의 과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셋의 반대근거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세금수익이 생각보다 작아서 각종 정부의 복지정책에 자원고갈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감세정책은 작은 정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유시장자본주의에 합당한 경제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GDP의 100%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경제성장과 동시에 세금수익의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남가주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 오찬' 행사 성황리에 개최, 홍선례
2. 기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항철
3. 기고: 막을 수 있었던 한반도 분단, 고병철 / 트럼프-공화당의 감세 정책, 백 순
4. 기고: 소록도로 가는 길, 천일양곡
5. 기고: 비트코인 이야기 (1) 쓸 것인가?, 정광수 / 30대 지도자 바람, 김광덕
6. 지부 소식: 남가주 동창회 /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
7. 지부 소식: 뉴잉글랜드 동창회 / 뉴욕지역 글든 클럽
8. 지부 소식: 미주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AI Music Seminar / 워싱턴 DC 동창회
9. "A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인간 김진형의 꿈" 출판 기념회 / 박영근 동문 영문 자서전 출간
10. 기고: 믿음, 최용원 / 감사(感謝)를 비틀어 짜다, 정홍택
11. <동문 문단> 광삼희
12. 기고: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는가?, 이중희
13. 기고: 단색화는 참 어렵네!, 장소현
14. 기고: 하와이에 부는 한국책 독서 열풍, 구자현
15. 기고: 하와이에 부는 한국책 독서 열풍, 구자현
16. 기고: 뽕뽕두에서, 최일단

17. 기고: 뽕뽕두에서, 최일단
18. 여행기: 산티아고 가는 길 (Camino de Santiago), 한정민
19. 문화 향기: 가을음악으로의 초대, 장수민
20. 문화 향기: 콜로라두라 창법의 명수 조수미, 한수용
21. 문화 향기: 콜로라두라 창법의 명수 조수미, 한수용
22. 기고: 허틀러가 유대인을 중요한 이유, 조화유
23. 나의 발자취: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4), 이준형
24. 여행기: Canadian Rockies 여행기, 조동건
25. 기고: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안세현
26. 후원금 집계,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종신이사회비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천양국 (의대 63)

소록도로 가는 길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 지난 몇년 동안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 다니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Memphis에 있는 Grace Land에 들렀다. 젊은 시절 나의 우상이었던 엘비스가 살던 집, 그가 묻혀있는 정원을 거닐며 다시 한번 세월의 무상함을 음미해 보았다. 미국 생활 거의 45 년이란 세월이 어쩌면 엘비스도 불렀던 'My Way' 처럼 삶에 대한 자만, 과오, 후회, 변명의 연속같이 느껴진다.

최근엔 한국의 남도 끝 부분에 위치한 소록도를 다녀왔다. 어려울 때 눈섭 빠지고 손 발 얼굴이 문드러져 괴물같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병 환자들의 애환과 고통, 소외되고 어두웠던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보살피고 간 사람들의 박애정신이 깃들어 있는 섬의 체취도 말아보고 싶었다.

소록도로 내려가며 아내의 태가 묻혀있는 공주, 나의 태가 묻힌 익산을 지나칠 때 어릴적 기억이 되살아 났다. 찌는듯한 1950년 여름 우리 집 식구들은 달구지에 새간 살림을 살고 고향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마침 후퇴하던 국군 장병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우리를 빨갱이 동조자로 몰아 길 한쪽에 세워놓고 총살형에 처하려고 했다. 그 때 선천에서 혁대에 숨긴 현금, 시계, 귀중품 등을 주고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반 나절 뒤 떠발총을 둘러맨 인민군들을 처음 만났다. 20세 미만의 앳된 그들은 우리한테 뭘 도와줄까 겁느냐 하며 아주 친절히 대해 주었다. 싸움터에서 흔하 볼 수 있는 승자와 패자의 태도였다. 그 후 석 달이 지나 전황이 뒤바뀌어 패자 신세가 된 인민군은 통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일상적 행동은 태어난 유전자보다 살아가며 경험한 주위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정신의학적 설명이 들어 맞는 말이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며 정음의 내장사와 백양사도 둘러 보았다. 푸르든 잎들이 연분홍 색으로 변해 바람에 날물거리며 마지막 타오를 단풍의 찬란한 멋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녕 기쁜 이별을 말해 주는걸까? 아니면 자신을 썩히기 까지 희생하는 애절한 모습을 보여주는걸까? 사뿐 사뿐 걸으면서 이미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밟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점심은 담양에서 4대 썰 내러오는 원조 떡 갈비집에서 떡 모양 같은 갈비를 푸짐하게 먹고 2시간 뒤 소록도에 닿았다.

웨딩 마치에 맞춰 손 잡고 걸어가는 신랑 신부의 행복한 길이 있는가 하면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비참한 길도 있다. 누구나 행운과 영광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

렇지 않은 듯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끝이 어딘줄 모르는 인생 길을 가야 한다. 먼저 걸어진 사람도 뒤따라 올 사람도 긴 세월을 하나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이 교차되는 길일 뿐이다.

나병 환자가 소록도로 걸어갔던 길은 죽기보다 삶은 길이었다. 밭 방울 같은 땅이 땅을 적셔도 뒤돌아 보지않고 묵묵히 걸었던 고통과 애환의 길이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걷는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개 없다/가도가도 천리 머린 전라도길/(중략) --- 손가락 한마디 더미를 굶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이 뼈 한마디 살 한점/하얀 봉대로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날이 따뜻해지면/남산 어느 양지 바른 터를 잡아서/깊이 깊이 땅 파고 묻



어야겠다. 환과 자포자기가 가득한 문동병 시인 한하운 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섬 모양이 어린 사슴 같다는 소록도, 아름다운 이름에 걸 맞지 않게 나병 환자들이 수용했던 천형의 땅이었다. 육지에서 수 1 KM도 못 미치지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같았다, 슬픔과 절망의 바다 건너 저쪽 물으로 가고 싶다는 환자들의 절규에 젖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저주받은 섬이었다.

나병은 말초신경과 피부조직이 썩어 문드러져 변형되는 외부 모습 때문에 옛날부터 하늘이 내려주는 형벌로 생각하여 환자들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종대왕 때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격리하기 시작했고 일제 때는 강제로 끌려다 소록도에 감금하여 죄인처럼 다루었다. 소록도 병원은 1916년 일본 총독부에 의해 설립되어 해방 후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기기묘묘한 바위에 부딪쳐 하얗게 출렁거리는 파도로 절경을 이루는 소록도, 지금은 나병환자는 별로 없고 이제 관광 명소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다.

나병은 1875년 세균 학자였던 Hansen 이 나균을 발견한 이래 한센병이라 알려

졌고, 코, 눈, 얼굴이 비틀어지고 문드러졌다 하여 문동병으로도 불린다. 나병은 구약 성서에서 인용되듯 인류역사 만큼이나 오래 되었고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아온 병이다. 인류에게 질병은 삶의 한 부분인데 세상에서 나병만큼 잔인하게 다루어진 질병도 없었다. Bacillus Leprae라는 균에 의해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지각마비, 피진(Rash), 손발 등 체형의 변화가 오는 병이다. 한센에 의해 나병이 유전이나 죄를 지어 벌 받은 병이 아닌 만성 전염병으로 확인되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병이래고 정관념 때문에 지금도 나병 환자를 멸시하며 피할려고 한다.

<추모비> 국립 소록도 병원 쪽으로 가는 길목에 한 추모비가 서있었다. 해방을 맞아 소록도의 나병환자들은 자치권을 요구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84명의 환자들이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에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2002년 늦게나마 비를 세운 것이다.

<수탄장> 치료약이 없었을 때 나병환자들은 말초신경의 손상때문에 눈이 폭 패이고 낫날은 간데없고 입은 뻐뻐어져 얼굴은 사자 형상이 되고 손 발은 진물이

나서 오래되면 뼈, 피부, 근육이 썩어 떨어진다. 보통 환자의 고름, 콧물, 침같은 체액으로 감염되며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가족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기구들로부터의 간접 감염은 거의 없고 DDS, 리팜마신 같은 치료약이 나와 감염의 위험은 거의 사라졌는데도 소록도에서는 1970년까지 환자와 환자의 자식들을 격리하여 살게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환자와 가족이 만나는 날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눈인사만 주고 받아야 했던 탄식의 장소를 그들은 수탄장이라 불렀다.

<소록도 공원> 1936년 일제 강점기에 환자들이 산책하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당시 환자들을 동원하여 3년 이상 걸려 여러가지 나무, 화초를 심고 잔디밭과 바윗돌을 날라와 조명이 빼어나게 꾸며졌다. 공원을 걸으며 구석 구석마다 환자들의 피담, 애환, 분노의 발자취로 젖어있는 것처럼 느꼈다. 어느 일본 원장은 공원에 하여금 강제로 감사 참배를 시켰다 한다. 정신과적으로 보면 그 원장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과대망상 혹은 조증 증세를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는 분개한 환자의 손에 살해되고 동상은 태평양 전쟁의 물자로 수거해 갔다. 공원 안에는 성모 마리아 상, 예수님 상, 한하

운의 '보리피라' 그리고 '나병은 낫는다' 라는 글귀가 새긴 구라탑이 높게 서 있었다. 구라탑은 나병환자들을 구한다는 의미로 탑 벽에는 지금까지 소록도 나병 환자를 보살펴주는 박애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감금실과 검사실> 공원 입구에 감금실과 감시실이 눈에 띄었다. 고분고분 하지 않은 환자들을 가두어 벌을 주고 사망시에는 시체해부를 했던 곳이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거세를 단행했던 단종대의 서글픈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수술대 위에서 장래 손자를 보겠다는 어머니 모습이 가물거리 자신의 정춘을 통곡한다는 젊은 남자 환자의 시 귀절은 너무나 애절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세번 죽는데 나병에 걸렸을 때가 첫째, 해부를 당할 때가 둘째, 세 째는 화장을 할 때라 생각했다

21세기의 정신과 화두는 단연 심리학 용어인 Empathy(감정이입)이라 말할 수 있다. 애타시는 타인의 문제나 감정을 자신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도덕적인 정서로서 이제 정신 영역뿐 아니라 정치, 종교,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박애, 봉사, 희생, 기부 같은 인간애적 행동의 근간인 애타시 없이는 선한 일을 이루기가 힘든 것이다. 그 애타시는 कै토릭 교황도, 한국 총리도 이곳을 다녀가게 했고 필자 또한 비슷한 마음 가짐으로 소록도에 조그만 발자취를 남기고 왔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자기자신의 행복의 잣대로 삼으려는 인간 속성때문에 나병환자를 멸시하고 멀리했다.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소록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순천만의 생체 환경 연구지역에 들러 갯벌로 둘러싸인 갈대밭을 걸었다. 소록도에서 하루밤 자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숙박이 허용되지 않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순천 낙양민속촌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초가집에서 자본지가 60년이 넘어 감개 무량했다.

아침을 순 한국식으로 들고 김의 특산지, PGA 골프로 활약 중인 최경주씨 고향인 안도를 휘쨌 둘러보고 진도로 향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몇 백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울물묵도 찾아 보았다. 울물묵은 바다의 폭이 좁아져 바다 물살이 개울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곳인데 장군께서 이를 이용하여 왜선을 이곳으로 유인한 후 물살사신 것이다. 전라 우수영 본관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호남이 없었더라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 란 이순신 장군의 필체가 세워져 있었다.

우리 조국은 지난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유래 없는 일로 기네스북에 남을 만 하다. 이번 여행은 그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현대 중공업 사장을 역임한 벵과 동행했다. 손수 차까지 내주고 길동무 해준 벵에게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정광수 (사회 79)

비트코인 이야기 (1)

쓸 것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로 세상이 다시 떠들썩해지고 있다. 연초에 1000달러 정도하던 가격이 11월에 이르러 7천달러를 넘어선 기세에 힘입어 올해안으로 세계 최대의 선물시장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에 선물거래가 등장한다고 하고 Morpheus Asset Strategy 등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취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종 범법적 거래에 사용된다는 비트코인은 내 관심밖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지났고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볼 때가 온 것이다. 적어도 남들을 따라



서 비트코인을 쓸 것인지 혹은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선 쓸 것인지를 살펴보자. 비트코인을 쓰는 결정은 각종 거래에 현금이나 크레딧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냐는 것에 달려있다. 경제원칙적인 면에서 지불과 가치보존의 수단이 되는 화폐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단 지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이나 중국등 비트코인의 사용을 통제하는 나라들에서 아니더라도 아직 거래소나 ATM들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기에 즉각 현금화하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또한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래가 그 기록시스템인 블록체인에서 확정기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신속하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같은 중앙관리자가 없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거래가 확정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비자카드 네트워크가 일초에 2만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고작 일곱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물건건 팔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상점주인이 그 판매기록이 나중에 무효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새로운 블록 즉 새



김광덕 (정치 82)

30대 지도자 바람

세계 지도자의 얼굴들이 확 바뀌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30대 최고지도자들이 속속 정치 무대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영국의 토니 블러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등 40대 지도자들이 새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도자 면면이 한층 더 젊어졌다. 지난 10월 하순 뉴질랜드에서는 37세 여성인 재신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총리직에 올랐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제2당에 그쳤으나 '캠메이커가 된 소수 정당'에 연정을 통해 제1당인 국민당을 누르고 총리를 배출했다. 아던 대표는 뉴질랜드에서 160여 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됐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는 중도 노선을 표방한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프랑스 현대 정치 사상 최연소 국가수반이다. 최근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서 31세의 세계 최연소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게 됐다. 국민당 대표인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1986년 생으로, 외무장관으로 있던 올해 5월 당권을 잡았다.

이처럼 30대 최고지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확 바뀌어 10년만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요즘 경제적인 논이에서 빼어놓으면 안 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의 장래는 밝지 않은 것 같다. 비트코인은 이를 발상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없고 채굴자들(miners)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컴퓨터들에 의해서 생성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해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트코인에 딸린 암호호를 생성하고 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미국 평균가정에서 일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비트코인 채굴에 쓰면 겨우 네 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전력 요금이 저렴한 나라에 비트코인 채굴공장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널리 쓰일 정도의 비트코인 '화폐량'을 위해서 소모될 막대한 전력량은 물리적 제한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인식을 심리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모저모 따져보니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인기도와 가격은 거침없이 오르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러한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가치보존 수단 더 나아가 투자 수단으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면을 국내 정치 무대로 바꿔보면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선 낙선자들이 줄줄이 야당 대표

로 선출되고 있다. 59 '장미 대선'에서 41%를 얻어 승리한 문재인(64세) 대통령은 민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됐다. 또 5월 대선에서 각각 24%, 21%를 얻어 2, 3위로 낙선한 홍준표(63세) 후보와 안철수(의학80-86) 후보는 각각 7월과 8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에서 7% 득표로 4위를 기록한 유승민(경제76-82) 후보는 11월 13일 열리는 바른정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 대표가 되려 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선 때 TV토론을 벌였 던 후보들이 나란히 세계 되는 장면이 재연될 수 있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여러 야당의 당수가 되는 현상은 1988년과 닮은 꼴이다. 1987년 대선에 출마했던 유력 후보 4명 가운데 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주당의 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대선에서 낙선한 김대중 김영삼 김중필 후보 등이 총재를 맡은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4월 총선에서 각각 제1, 제2, 제3야당이 됐다.

어쨌든 한국 정치는 미국이나 영국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과 영국에선 정당 이름이 200년 이상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영국의 노동당-보수당이 그렇다. 그 나라들에선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나타나 당을 개혁하고, 결국 대통령총리가 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당 이름은 수시로 바뀌지만 정당 지도자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물론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지만 충분한 경력을 가져야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선주자군에 새 얼굴들이 수혈돼야 우리 정치에서 '메기' 역할을 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는 말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도 새 영웅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서도 '신(新)영웅시대'를 준비하는 '선한 인재'들이 나왔으면 한다.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 www.snuua.org

남가주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 오찬' 행사



성주경 회장



강신용 수석부회장



김육권, 김영기 동문



오형원 전 총동창회장



이원영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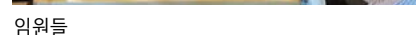
이해영 동문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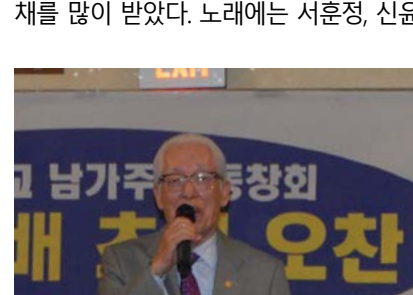
임원들



유의영 동문 부부



피아노 제갈소망 동문



오형원 전 총동창회장



이원영 동문



유의영 동문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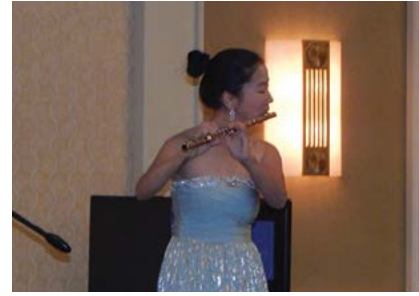


피아노 제갈소망 동문

희, 장구에는 여준영, Piano에는 최윤석씨가 수고하였다. 이어 성주경 총동창회장의 인사로 이날의 행사는 끝났는데, 동문들은 다음 모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쉽게 헤어졌다. [기사제공: 홍선례 (음대 70, 남가주총동창회문화위원장,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



김건진, 오홍조 상임이사



플룻 최혜성 동문



해밀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하이킹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9시 경 모여서 Milton, MA에 있는 Blue Hills- Buck Hill을 등산 하였습니다. 김정선, 홍도화, 박영철 회장의 인도로 4 mile을 2시간 15분 동안 하이킹하였습니다.

날씨마저도 유난히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단풍의 늦은 가을에 항상 즐겨 만나는 동문들, 기다리던 동문들과 가족들의 산행이 Houghton's Pond Parking Lot에 여기 저기서 몇 명씩 하나, 둘, 밝은 웃음을 띄우며 기대에 부풀은 듯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인사 조차도 반가움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들...

박영철 회장님, 그리고 각자의 소개로 가끔 터지는 웃음 소리로 모두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움직이는 발길을 마저도 즐겁기만 했습니다. 등산에 익숙하신 두 분이 앞에서 리드하시고 뒤에서 따르시고 한 사람이라도 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 늦으신 분은 그룹에

서 탈락시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니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전 은근히 우리집 그분이 꼴찌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몰래 몰래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몇 년 전에 정선주 회장님 시절, 미국에서 생전 처음으로 등산 갔을 때에 우리 집 그분이 맨 뒤에서 후배님 한 분하고 동행을 했던 기억이 너무 새로워서요. 그 덕분에 걷기를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서로 서로 할 이야기도 많았던지 얼마 안된 듯 싶은 거리에서 잠시 쉬 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Boston이 아름다운 그림같이 보이고 주위에 산들도 그림같이 아름답지만 하구요. 많이 여윈 나무들의 단풍 잎도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말 끝에 간식 타령이 나와서 회장님 덕에서 준비해오신 것들을 아이들 같이 모



두 받아서 맛있게 즐기고는 그전에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셨던 간식 타령이 한창이었습니다. 내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때의 간식은 정 회장님 시절 등산을 갔을 때, 단 호박 soup을 만들어서 산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쩌나 맛이 있던지 그 등산하는 산 속까지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신 정성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 기억 속 옛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등산을 하다보니 여전히 무언가를 가져와서 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모두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분인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번의 등산 길은 들이 아주 많아 다른 산 길과 조금 다르고 중간 지점에 아주 큰 돌 두개가 빼떡하게 높이 걸쳐져 있어서 몇몇 대담하신 분들이 올라가서 즐기시는 모습이 꼭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 착각도 했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겁도 없으신 것 같구요 내려오 시느라 좀 힘이 드시긴 했어도... 정상에서 점심, 간식, 농담도, 이야기도 모두 즐기고 돌아가는 길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길은 좀 쉬운 듯 Parking Lot에 모여서 헤어

져야 하는 아쉬움으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가을이 올해에 아름다웠던 옷 벗고 떠나더라도 내년에는 또 다시 아름다운 가을이 되어 돌아와서 우리 모두 다시 등산할 수 있는 기회도 기다려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선물인가봐요.

오후에 Parking Lot에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 만나서 서먹 서먹하던 동문과, 같이 오신 분들도, 서로 낮이 익고 서로 좀 더 가까워져서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서로 인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뒷걸음으로 모두들 자기들 차를 찾아가며 언제 다시 또 만나자는 약속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서로 정도 나누고, 더 가까움을 느끼며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아주 좋은 동문이시고, 친구 분들이시고, 가족 분들 이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웠던 오늘의 등산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가웠고 즐거웠던 시간을 감사합니다. [기사제공: 약대 56, 김만옥 / 이옥경]



뉴욕지역 골든 클럽 2017년 마무리 골프 대회가 지난 11월 2일 뉴저지 퍼블릭 골프장에서 21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2부로 나누어 각각 따로 시상을 했다. 포워드티에서 플레이하는 남자와 레드티에서 플레이 하는 여자선수들을 2부로 했다.

모두 10명이 기량을 겨룬 1부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핸디 하향조정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상을 받은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분들은 언더핸디를 첫거나 오버를 첫거나 아

무도 핸디 조정이 된 선수가 없고, 2부에서는 언더핸디를 친 선수 세사람이 모두 상을 받고 그 외에는 단 한명만 핸디에 변화가 없을 뿐 다른 일곱 분은 모두 상향 조정 되었다.

저녁식사는 객선석 회원이 모든 회원을 위한 저녁을 자택에서 준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골프를 못 친 정도현 동문은 먼 커네티컷에서 후원금까지 지참하고 오다가 길 잃고 영겁결에 김영덕 동문과 마주쳐 미아가 되지않고 저녁식사는 장소인 객선석 동문 댁에 도착했다.

뉴욕지역 골든 클럽 2017년 마무리 골프대회



참가회원수 21명, 메달리스트 손경택, 1부 1등 김영덕, 1부 공동 2등 주재양, 손경택, 2부 1등 김문연, 2부 공동 2등 조달훈, 조승자, 근접상 두개 한경수 [기사 제공: 양인회]

정정합니다. 지난 282호 10페이지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 정기 연주회 개최는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 공연으로 바로잡습니다.'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 연습

지난 11월 8일 저녁, 동문들 발걸음이 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 단원 36명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200 S. Grand Ave. L.A. CA 90012) 정기 연주회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열심히 연습한다. 편한 차림과 편안한 마음으로 오직 음악의 화음에 매료되어 모인다.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나온 후, 음대만이 아닌 각 단과대학 동문들이 모두 모여 합창 연습을 한다.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연세에도 얼굴 표정이 동심으로 돌아간 한 분 한 분의 화명한 음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멋진 작품이 된다. 지휘자 장진영(음대 88) 동문은 이번 곡목 선택과 연출 모두를 기획했다. 단장 강정자(간호대 61) 동문은 "지휘자님이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어 인기가 있으며 파트별로 녹음과 CD를 주시면서 연습하도록 도와 주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칭

찬한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애로 사항 없이 행복하다면서 모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이번 음악회의 첫 곡목은 1) 합창 Five Hebrew Love Songs(Hila Plitmann 작사, Eric Whitacre 작곡, 조은아 곡중 솔로(음대)/Violin 박민정(음대 80)/Tambourine 박상연(타동문), 지휘 장진영/반주 김연정(음대 86) 으로 시작된다. 특별출연 2) 삼고무 및 검무/ Erin Suk, Julia Lee & Julia Kim 유희자 무용연구소 협찬 3) 합창-동무생각(이은상 작사 & 박태준 작곡)/추심(가을이 오는 소리 (정태준 곡)/ 눈(김효근 곡) 4) 한국 민요 모음(아리랑, 한강수 타령, 도라지 타령, 경복궁 타령(해금 박영안(타동문), 대금 박종대(음대 64), 장구 유희자(음대 68) & 가야금 장정선(음대 89) 5) 부채춤(Alicia Kay, Amy Song, Elizabeth



단장 강정자(간호대 61), 지휘자 장진영(음대 88)

Ahn, Kristi Lee, Lauren Kim & Terra Lee)이 결연하며, 6) 크리스마스곡 We wish you a Christmas adventure(Takayuki Mori 작곡)/violin 박민정/Piano 김연정)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곡목 으로 We wish you a Christmas adventure(Takayuki Mori 작곡) violin 박민정(음대 80)/Piano 김연정(음대 86) 연주 7) 합창(silver Bells, Deck the Hall, Betelehemu-곡목-Bongo Samuel Mazur, Tambourine 박상연) 8)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김현철 작곡 & Arr. By 윤소희) 9) 오 거룩한 밤(Adolphe Adam & Arr. By



연습에 열중하는 동문

장진영/ His Dream Handbell Choir 지도 최선휘 & 박상연) 특히 2부는 12월 첫 주의 크리스마스 기분을 듬뿍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을 수놓는다. 단장님과 지휘자님 및 합창반 동문님들은 이번 연주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종전의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렵지 않은 대중화 할 수 있는 곡으로 합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편한 곡으로 선택했으며 한복을 입고 출연하는 화려한 무대와 더불어 음악회에 참석하신 분과 함께 소통하는 멋진 추억이 담긴 연주회의 밤이 되기를 바란다. [기사제공: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미주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AI Music Seminar



왼쪽부터. 이정수(공71), 이상열 하버드 학생회장, 이상준(공, 기계공학03)하버드 학생회부회장, 이지원 박사, MIT 학생회장, Mrs 윤, 윤상래 미주 동창회장

미주 동창회는 브레인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10월 28일 저녁 6시, Harvard University Science Center에서 열린 AI Music Seminar를 후원하여 Harvard, MIT 한인 학생회, 뉴잉글랜드 과기협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연사는 이정수 동문(공대 71 입)의 자제 이지원 음악 박사(Eastman 학, 석사, Rutgers 대 박사)였으며, 이지원 박사는 지난 2개월 간 동창회보에 AI Music을 소개, 연재하여 오고 있다. 이지원 박사는 현재 모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과 대답의 시간에는 참석한 56-60명의 많은 학생들이 진지한 흥미를 보였다. 리셉션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푸짐한 음식을 즐기면서 매우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지원 박사의 강의를 발췌한 글이다.

AI Music Seminar outline

1.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AI Music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과 AI Music (The importance of AI music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I music)

역사적 흐름을 보았을 때 음악은 항상 그

시대의 예술, 사회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은 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차산업혁명의 인쇄술 발달로 음악세계에서는 악보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철강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며 악기가 발달하여 연주가 편리해지고 화려한 기교의 곡들이 작곡되고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3차산업혁명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녹음, 소리의 재생, 음악의 디지털화, MP3, 전자 악기 발명 등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현재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새로운 기술들이 음악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인공지능 음악(AI Music)이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현재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Robotics, Sensor 등 새로운 기술들의 영향으로 AI Music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사회의 결과물이며 음악세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AI Music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현대음악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음악시장의 크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The size of Music market/

워싱턴 DC 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11월 1일 골프 동우회 (회장 정세근-- 제 기억엔 오재환로 기억하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최로 21명의 동문들이 로턴에 있는 로럴힐 골프 클럽에 모여서 올해 마지막 골프 토너먼트를 가졌다. 로럴힐 골프 클럽의 멤버인 오재환 동문의 수고로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을 포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다.

점수 방식은 무작위로 6개의 홀을 골라서 켈러웨이 식으로 계산되었으며, 1등 상 서윤석, 2등 오재환, 3등 김태문, 장타

상에 나영은, 근접상에 곽명운 등의 동문들에게 돌아갔다.

이후에 저녁 식사를 애난데일에 중화원에서 가지고 서로 자주 못 만났던 선후배와 동문이 서로 소개하며 또한 친교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지역에서 자녀분들 때문에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오신 분들도 계셨고,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시는 동문도 있었다. 동문이라는 끈과 함께 같은 취미로 묶인 골프 동우회에 앞으로 많은 동문의 참여를 기대한다. [기사 제공: 나영은 (가정 86)]

The value of Music Education)

음악분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 발표자료의 예를 들면 APP ANNIE에서는 앱스토어의 수익이 2016년에 510억달러였고 2020년도에는 약101조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음악시장이 핵심이라고 발표하였다.

David Sousa는 "How the Brain Learns" 라는 책에서 음악을 통해 얻는 장점들을 소개했다; 음악은 우리의 뇌를 새로운 방법들로 자극하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학습되고 연계작용 되어야하는 새로운 운동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서 뇌 구조에 심오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Music School Today라는 Organization에서는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다고하였다.

3. AI Music: The State of the Art

음악은 크게 연주, 악기, 작곡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이 세가지 분야에서 현재 어떻게 접목이 되고있는지를 보면 첫번째로 음악에서 공연을 하는 연주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연주를 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로봇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지휘를 하는 형태이다.

음악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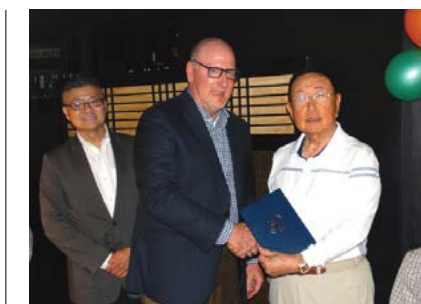
를 차지하는 악기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을까? 핸드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앱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음악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기타, 드럼, 트럼본, 플루트 등의 악기들이 앱으로 구현이 되어 대중들에게 경제적으로 구입이 어려웠던 악기들이 핸드폰을 사용한 악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곡은 현재 스타트업 및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인공지능을 음악에 접목시켜 상용화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게 되며 많은 광고회사, 영화제작사 또는 게임 스튜디오 등이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되는 음악을 경제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음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곡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도 부담없이 새로운 곡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4. AI Music에 대한 기대

이렇게 인공지능은 음악세계에서 연주, 악기, 작곡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외에도 음악교육 및 음악가들에게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영향으로 그동안 음악세계에서 경제적 (악기를 배우는데 있어서의 값비싼 레슨비) 시간적(연습하는데 소비되는 많은 시간)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이 개선되며 대중들도 음악을 쉽게 배우고 연주하고 작곡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기사 제공: 윤상래 회장]

“LA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인간 김진형 (문리 55)의 꿈” 출판 기념회 대성황



지난 9월 29일 LA 가든스 호텔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려 300여 명의 재미동포사회 각계 각층과 함께 자리를 하며 대성황을 이루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인 랄프 안 (91세, 1926년생) 박사가 "1930년대 당시 남가주의 재미 한인인 불과 300명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의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낸 우리 한인들의 노력과 질적 양적 성과를 보면 정말 감격스럽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해외의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민회'를 결성하여 나라를 되찾자며 자발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등 투철하게 분투해 왔다. 한인들이 구심점을 갖는 코리아타운 형성이 크게 기여한 김진형 박사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는 축사를 했다. 허브 웨슨(Herb Wesson) 제 10지구 시의원이며 LA시의회 의장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이 책은 민병용씨가 14개월에 걸쳐 완성했는데, 저자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은 1974년부터 한국일보 기자로 코리아타운 형성과 한인축제의 시작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80년대 LA시의 코리아타운 통과 전후의 시의원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인터뷰하여 책을 완성했다. 코리아타운 만들기는 "코리아타운 변영회"를 창립한 1972년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 12월 8일 LA시의회가 코리아타운 명명의 동의안을 통과 시키며 공식적인 한인타운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를 위한 주역이 바로 김진형씨로 LA의 '코리아 퍼레이드'로 유명한 '한국의 날' 축제 창시자이기도 하다.

축하연주로 서울대 동문인 백옥자씨의 가야금 독주가 있었다. 축사는 LA한인축제재단의 지미리 회장, 김기천 한인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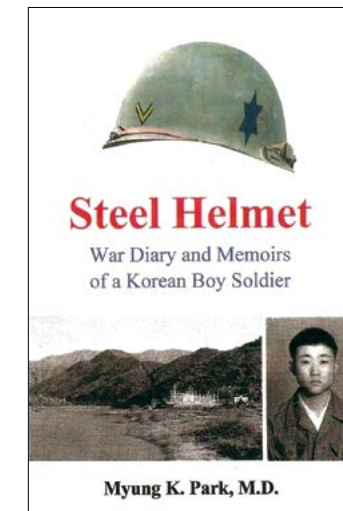
서너협회 회장, 그리고 성주경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1968년 미국의 꿈을 안고 LA에 정착한 저는 당시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을 돌아보고 그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고 한편 놀라웠다. 우리 한인동포들의 급선무가 코리아타운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를 위해 무작정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는 1971년 지금의 올림픽 거리에 "한국 서적센터"를 개업하였다. 그는 업소들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이중언어 간판 부착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글간판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접 상점마다 한글간판을 달아 주는 데 앞장섰다. 다시금 그는 한인상가의 번영을 위해 1972년에 '코리아타운 변영회'를 창설하였고, '미국 속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코리아퍼레이드와 함께 한 'LA한인축제' ('한국의 날' 축제)를 최초로 개최하는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한인상가가 오늘처럼 번영하는데 있어 그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던 지금의 코리아타운 지역에 상가지역(Commercial Zoning)을 만든 것이다. 그는 시정부에 "Koreatown Specific Plan"이란 계획서를 제출했고, LA 시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 받아 이들 주거지역을 모두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키는데 성공하여 코리아타운 상가발전이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그 다음은 상가발전에서 방법문제였다. 그의 숙원사업은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한인들이 미국경찰의 기동순찰 방법보다는 파출소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을 시정부에

박명근 동문 영문 자서전 출간



박명근 동문은 의과대학을 1960년 (14회)에 졸업했다. 1962년 도미하였고 Texas 의과 대학의 (Tenured) 교수로 근 40년 동안 근무하다 은퇴했다. 제6회 참군대상 학술분야의 수상자다. 근래에 Amazon.com (Create Space)을 통해서 영문 자서전을 출판(self-publish)했다. 책의 이름은 "Steel Helmet: War Diary and Memoirs of a Korean Boy Soldier"이다.

이책의 전신은 한국의 "문학동네"에서 2008년에 출판한 "소년병의 일기"이다. 이 영문으로 된 책은 "소년병의 일기"의 English version으로써, 박동문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한국 2세나 3세,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하여 출판 하였고 때문에 한국에 대한 Introduction to the country of Korea 의 section을 첨가했다. drmpark@satx.rr.com

주지시켜 LA 경찰국 역사상 최초의 파출소를 코리아타운 8가에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미주류사회에 코리아타운을 인지시키기 위해 10번 프리웨이 코리아타운 출입구에는 <Koreatown>이란 표지판을 고속도로 상에 세워 줄 것을 요청, 시정부는 안내 표지판을 코리아타운 고속도로 출입구 마다 부착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 봉사자로 노년복지를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 커미셔너를 맡아 18년간, LA 경찰국의 경찰 허가 심사 커미셔너로 13년간 헌신했다. 이 같은 그의 공헌을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인정해 지난 1984년 5월 24일 로스앤젤레스시와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큰 공을 세운데 대하여 '미국 국회 하원의 의사록'에 그의 공덕을 등재한 바 있다.

민병용 관장은 발간사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40여년 신문기자와 이민역사가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만든 역사와 45년의 성장역사 그리고 1974년 한국의 날 축제를 시작한 이야기를 책임 있게 써보는데 일이었다. 초창기 한인사회 및 코리아타운의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으나, LA 시정부가 김진형 '코리아타운변영회' 초대회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일을 해온 옛 회의록과 사진, 신문 기사를 찾았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1980년 12월8일 코리아타운 구역 결의안 통과 기록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가장

컸다. 그후 역대 시의원, 도시계획국 City Planner, 미국 연방하원의원 비서실장을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리아타운 건설의 주역이자 코리아 퍼스티벌 창시자인 김진형 명예회장의 생생한 인터뷰와 증언 그리고 소장해 온 자료가 코리아타운 역사 기록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4년 LA 코리아타운의 심장 부인 올림픽과 버몬트 거리 교차로가 코리아타운의 개척자인 김진형 박사의 이름을 딴 '닥터 진김 스퀘어(Dr. Gene Kim Square)'로 명명되었다.

제41회 LA한인축제가 개막된 2014년 9월 18일 LA 시의회(시장 허브 웨슨)는 코리아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 '김진형 광장' 명명식을 가진 직후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버몬트 교차로에서 표지판 공개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허브 웨슨은 축사를 통해 "김진형 박사는 LA 한인사회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LA시 발전에 공헌한 위대한 시민"이라며 "특히 LA 한인축제를 창시하고 한인타운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는데 앞장 서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형 박사는 "이런 영예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으나, LA 시정부가 김진형 '코리아타운변영회' 초대회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일을 해온 옛 회의록과 사진, 신문 기사를 찾았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1980년 12월8일 코리아타운 구역 결의안 통과 기록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가장

동창회 행사 소식 및 동문 동정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공대 61)
논설 위원

믿음

친구들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하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는 희망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 국가 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약해지면 반란 과 혁명이 일어남을 역사의 거울 속에 서 흔히 본다.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나와 나 자신 사이에도 믿음이 강해지면 역경을 이 기고 견디는 듯하다.

태양을 바라고 사는 목숨은 해바라기 뿐이 아니다. 햇빛의 물리적인 에너지 와 함께 오는 정신적인 믿음은 일찍부 터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해 뜨 는 동쪽을 향하여 이주하기 시작한 동 기였다. 짐승들에 섞여 짐승처럼 살던 그때, 맹수와 싸우는 밤의 두려움을 쫓 아내고 새벽을 깨우는 태양의 광명은 인류가 문명을 향한 탈출의 시작이었 다. 태양신을 숭배한 믿음의 능력은 곧 만물의 영장이 되는 시작이었을 듯하 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信仰)을 가지고 산다. 어머니의 젖 을 먹고 자라는 동안에 엄마에게 의지 하는 버릇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 는 처음부터 갖추어진 능력이다. 그 능 력은 한평생 지속하기에 아기 때 우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듯이 자라나서 어 른이 되어서도 소리 없이 혼자 우는 마 음의 소리를 하늘이 듣고 있음을 바라 다. 고독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물 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구원의 손길을 찾아서 종교가 시작된 것이 아 낄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있다. 1945년 이차대전이 종결된 8월 15일에 우리 가족은 중국 만주의 무순에 살고 있었다. 우리 부모는 10살 된 형, 8살 된 나, 5살과 2살 된 누이, 4 아이들을 거느 리고 이미 봉쇄된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을 넘고 북한과 남한의 국경선을 넘어 서 남한의 고향에 돌아오는 과감한 결단 을 내렸다. 안개 낀 어두움 속에 나룻배 를 타고 압록강을 건널 때 소련 국경 경 비군의 딸땀총과 장총 소리는 요란하였 고 총알은 별 때처럼 우리 주위를 지나 며 강물을 튕겼지만, 우리 배는 무사히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평양에서 며칠 동안 머무른 다음, 당시 남한의 개성시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모 든 교통이 두절되어 보행만으로 40여일 의 긴 여정이었다. 가끔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를 만나면 시골 농부의 친절함이 하늘의 도움이었다. 큰길가나 농가의 처

마 밑에서 여섯이서 움츠려 자고 9월의 곡식과 열매의 도움을 받으며 생존하였 다. 드디어 남과 북을 나누어 놓은 개성 시 서쪽의 레성강에 이르렀을 때에 우 리 가족은 북한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

구치소에서 하루 지나고 우리 어머니의 교섭이 인민군 경비대 책임자에 이르렀 다. 어머니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빼어 책 임자의 손에 쥐어 주며 간곡히 부탁하였 다. 책임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 들을 불쌍히 보았는지 책임자 자신이 우 리를 인도하고 예성강에 이르렀다. “뛰 지 말고 저 다리를 천천히 걸어서 넘어 가시오.”라고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다 리를 건너 우리는 드디어 남한에 도착하 였다. 미군 헌병은 우리에게 디디티 살충 제를 뿌려 우리 모두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만 깜빡이며 웃고 있었다. 며칠 후에 열차 편으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였을 때 엄마와 오빠들의 등에 업혀 온 2살 된 누이는 드디어 숨을 거두었다.

우리 가족이 만주를 떠나 2달 후에 남한 에 도착함은 기적이었다. 위기가 닥칠 적 마다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구해주는 요 행의 계속이었다. 그동안 부모님의 끊임 없는 기도뿐이었다. 우리가 남한으로 돌 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머물렀거나 북한 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상상을 해보면 더욱 절실한 기적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슬하에서 형은 불 교에 의존하였고 나는 미국에 유학 온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누이는 미국 신랑의 가족을 따라 천주교 교인 이 되었다.

믿음을 얻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처음에 는 부모의 사랑과 하늘의 믿음에 의존하 기 시작한다. 목숨의 귀중함을 알고 인생 의 인연을 나름대로 이해하며 배운다. 믿 음으로 생활하며 습관에 적응하며 익숙 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 동안 차츰 하늘과의 연관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랑 과 공물을 행동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그 려수록 가끔 믿음의 의혹과 고독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며 기도는 더욱 뜨거워지 는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달라 진 모습으로 나를 깨우고 내 인생이 크 게 변화됨을 한순간에 경험한다. 내 인 생에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어 무한한 기쁨을 얻는 감동을 경험한다. 모든 두려움 이 사라지고 죽음마저 즐거움으로 여겨 지게 되는 듯하다.

믿음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몸의 그릇에 담겨 있다. 사람의 뇌는 영성을 관리하는 뇌간이 있어 종교가 있고 감정을 관리하 는 소뇌가 있어 식욕과 성욕의 기본기능 에서 발달한 감성으로 예술을 즐긴다. 영



정홍택 (상대 60)
논설 위원

감사(感謝)를 비틀어 짜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오니 길가에 낙엽 쌓이듯 나의 우체통에도 세일(Sale)광 고 전단지가 매일 수북히 배달된다. 전 단지 버리다가 자칫 중요한 우편물까 지 섞여나갈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한 다. 달걀 두 장 남은 달력을 내려놓고 11월에는 ‘감사절’, 12월엔 ‘크리스마스’ 두 날짜 위에 빨간색 큰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는 마음의 빗장을 조이 며 읊조린다. 이제부터 ‘메일(Mail)단속’, ‘대문(Door) 단속’ 철저히 하자.

이게 무슨 짓이야. 감사의 계절이 오면 훈훈한 정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빗장 을 풀어야지 더욱 단속하며 조이다니? 예수님이 묻고계신 ‘네 이웃은 어디로 갔지? 그것도 잠깐, 마음은 슬슬 바빠지 며 몰려오는 각종 행사와 선물 리스트 (Gift List)로 차오르기 시작한다. 미리미 리 준비해 그 날에 가서 허둥대지 않으 려면 세일 전단지(Sale Advertisement) 도 눈여겨 보아야겠다.

세일 전단지마다 터키새(Turkey Bird)가 즐거운 듯이 웃고있다. 어떤 터키는 청 교도 모자까지 쓰고 행복해 한다. 감사 절은 터키 굵은 계절이니 터키들도 행복 해 한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잠깐! 이 건 아니다. 거짓말아닌가. 진실을 말하 자면 감사절 저녁 집집마다 터키가 상 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터키 수 난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수 천만 마 리의 터키들이 단기간에 도살을 당해 야 하는데, 우리 뇌 속에는 어느덧 행복 한 터키의 상(Image)만이 그려져 있 다. 장사꾼들의 지능적 공략에 우리는 어느덧 세뇌당해 그들의 장단에 맞추 어 행복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 춤추는 무대 뒤에서는 그 많은 터키 들이 매일 대량 도살당하고 있는데 말 이다. 이 터키새들이 어떤 식으로 도살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장 사꾼과 도살자들의 극비 사항일테니까.

12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면 나는 성경 속에서 또 걸길로 빠진다. 2000여년 전 12월 25일 예수님 이 탄생하시므로 인해서, 그 때 베들레 헤에서 태어난 간난아기를 수 백명은 이유도 모르고 죽여야 했다. 헤롯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지방, 그 도래 아이들 전원에 대해 학살 명령을

내린 까닭이다. 간난 아기들은 아직 죽 음이 뭔지 모르니 그렇다치고 부모들 은 얼마나 황당하고 슬픔을까?

참, 나도 한심한 인간이다. 모두가 행복 한 계절에 꼭 이렇게 초를 쳐 분위기를 망쳐야 한단 말인가? 감사의 달을 맞아 남들과 같이 즐거워 하고 잔을 높이 들면 안되나? 그야 내 눈만 딱 감으면 안될리 없지. 그래도 진 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를 하려면 그 감 사가 있기 까지 혹 우리 눈에 띄지 않은 희생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면 그들에게 목례 정도의 감사라도 해 야 하는데 드리라고 생각한다.

또 ‘감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 대말이 무엇일까요도 생각해보았다. 구글 을 두드려보니 그 반대말은 ‘당연’이라 고 한다. 우체부가 매일 나의 집 우체통 에 배달해 주는 것은 제 월급을 받기 위 함이요, 식당에서 웨이터가 요리를 가 쳐다 주는 것도 다 제 직업이니까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당연’의 마음씨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지고 남의 흠이 크게 보여 주위에 못 마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 되어 자연히 그 사람의 눈 꼬리는 올라가고 입술 끝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나는 오늘도 일간신문의 뉴스를 읽고 나서 지방판에 나오는 부고란(Obituary Page)을 찾는다. 고인들 모두가 미국 사 람들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올 리 야 없지만 돌아가신 이들의 사진과 생 전의 업적들을 읽으면 그 재미가 또한 쓸쓸하다. 인상좋은 분의 사진일수록 하나같이 입 양 끝이 올라가 미소가 생 기고 눈꼬리가 내려와 운순한 얼굴을 만든다. 생전의 경력을 읽으면 그 행적 또한 아름답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인물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 래서 나는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복받 는 얼굴은 웃음이 새겨진 얼굴이고 그 얼굴은 ‘감사’의 마음이 매일 조금씩 조 각해서 빛어진 작품이로구나.

자,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아 내 할 말 은 다 했고 또 하나의 글이 완성되었으 니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한번 크게 웃 어본다.

장류에 이르러 발달하는 진화 과정으로 사람의 대뇌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성이 발달하였다. 영장류의 막내로 태어난 사 람은 이제 온 지구를 차지한 만물의 영 장이라 일컫는다. 영성, 감성, 이성의 모

든 능력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늘의 뜻을 따라 지구를 다스리고 모든 모습과 함께 삶을 꾸려갈지 궁금하다. 믿음을 가진 사 람에게는 항상 하늘이 함께 하는 듯하여 긍정적이다.

동문 문단



곽상희 (문리 52)

The Desire To Sit Lower 낮게 앉은 욕망에게

The Desire To Sit Lower

To the crumbled sands under the feet of men and beasts, sweet-smell wind to quivering petals, grass of sidewalks, to the moon at the end of the month to the books, poetries, my first and last poem to my breath, my feet, my hands to you who do not see me to leave you to laughter, to tears, to handshaking
Alas, to shining waterdrop of early morning to you standing at corner of the otherside of road to the torn yesterdays newspapers to the sounds of boiling water candle in the deep winter to the warm hand upon my shoulder to someone droop his head who lost in the midtownof Broadway. to despair, despair never filled to little child's twinkling eyes to the winter flower garden to the winter grove to the color fading away to the sound without sound to the dark, to the light to the uphill of debts without ending.....

낮게 앉은 욕망에게

사람과 짐승의 발밑에 바스르린 모래, 향내 나는 바람 꽃잎의 떨리는 심장, 길가의 잡초, 돌아선 그림달 책들과 시집들에게, 내 첫 시와 마지막 시에게
내 푸른 숨결, 내 발에게 손에게
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는 그대, 그대에게
눈물에게, 웃음에게, 아, 아침은 빛나는 이슬방울 하나
길모퉁이 쓸쓸한 그대, 찢어진 신문지 조각
추운 날 자글자글 찌게국물 끓는 소리
누군가 가만히 와 내 어깨 엮는 손

세상 어딘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 잃은 사람
갈 곳 없어 브로드웨이 한복판 고개 속여 서 있는 저 사람
채워지지 않는 절망, 작은 희망에게, 낮게 앉은 욕망에게,
초겨울날의 꽃발, 나무의 빈 겨울마음
색깔 없는 색깔, 소리 없는 소리, 어둠에게, 빛에게
함께 손잡은 그대, 아득한 빛값음의 산 오르기...

종합지 삶과문학지 발행인, 박남수시인대상, 영국 국제여류시인상 Olympoetry로 선정됨 (Spain), 계간시인(UPLI), 곽상희 Internet Letters, 창작클리브 경영(후배양성1984-현재)

거울에 쓰는 붉은 몽당연필

11월의 시간은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옷깃을 잡고 흔드네요. 더욱 붉고 선명해지는 단풍,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의 손에 얹히어 기품답게 가는 강 흐름 같은 모습, 감쪽 같이 가고 오는 세월 속에서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란 Alfred Alder의 말 에 시인에게 시는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절감을 하며 11월의 감성은 저는 높푸른 가을 하늘에 울곧 떠 있는 감잎 몇 개와 황금빛 감 두알, 혹은 씨감, 늦게 찾아오는 새를 위해 남겨놓은 그 정답 가득한 한국의 정서 한 개, 이렇게 제 가슴으로 저며 오네요. 오래 전 17년 만에 찾아가던 조국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그렇게 스리도록 제 가슴에 각인되어 버렸지요.

시인 강인호는 ‘가을에는’ 라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물소리 맑아지는 가을에는/ 달빛이 깊어지는 가을에는/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에는/ 썩부쟁이 꽃피는 가을에는// 어인 일인지 부끄러워진다/ 딱히 죄지은 것도 없는데//아무런 이유 없이 가을에게/ 자꾸만 내가 부끄러워진다>

하늘이 높고 물소리가 맑아지고 깊어지는 가을에는 어인 일인지 부끄러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겠어요. 또 이 준판 시인은 ‘가을에 사람이 그리울 때면’ 라는 시에서 <가을에 사람이 그리울 때면/ 시골 버스를 탄다/ 시골 버스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황토흙 얼굴의 농부들이/ 아픈 소는 다 나았느냐고 /소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낯모르는 내 손에 /고향 불빛 같은 감을/ 쥐어주기도 한다./ 콩과 팥과 고구마를 담은 보따리들/ 제 지식처럼 품에 꼭 꺼안고 가는/ 아주머니의 사투리가 귀에 정겹다./ 창문 밖에는 /찌 많은 소년처럼 물구나무선 /은행나무가 보이고, /지붕 위 호박덩이 /같은 가을 해가 보인다. /어머니가 싸주는 /따스한 도시락 같은 시골 버스 /사람이 못내 그리울 때면 /문득 낮은 길가에 서서 /버스를 탄다. /하늘과 바람과 낫달을 머리에 이고>

이 얼마나 한국적인지, 우리의 고향 내 속에서 우리의 속 깊이 자르르 흘러드는 우리의 정...시인은 가을에 사람이 그리울 때 하늘과 바람과 낫달을 머리에 이고, 시골 버스를 탄다 고 노래했어요. 그러나 그가 노래한 그런 정경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시인은 그가 사는 시대를 떠날 수 없지요. 외형적으로 다가오는 사회 상황의 조임에서 몸부림치며 자유와 해방의 꿈을 꾸는 그에게 그의 시는 자연 다른 옷을 입지 않을 수 없겠지요. 쉽게 앞서 갈 수도 또 뒤로 쳐질 수는 결코 없는 시인의 즐거운 운명, 나는 이것을 즐거운 운명이라 부르네요. 이것이 결코 다음에 나오는 나의 줄 시의 변명이 아니기를....

중지도 펜도 없이
누가 붉은 몽당연필로 시를 쓴다
거울에 립스틱으로
적는다
궁행이가 단단한 모래 위를 꿈틀거리듯
거울에는 시가 아닌 시 한 줄
또 한 연, 아득스런 너의 말...
내 속에 잠자던 나비가 눈을 반짝 한다
오래 오래 정교롭게 점잔 빼던
더는 오욕과 거짓에 짓눌려 견디지 못하고
눈을 뜨고 파닥 거린다

나비가 내가 되려한다
꽃이 되어 가을 단풍이 되어
아니, 무엇이나 되어 꿈꾸는
자책

세상 모든 미움 절판하려한다

나비는 수직으로 서서
최후의 유연처럼
사랑, 사랑..... 날개로 적는다
아, 바스르린 뼈들이 보송보송
일어나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 (거울에 쓰는 붉은 몽당연필' 곽상희 작)

저의 부끄러움의 시를 날마다 저의 서신 속에 보내는 것은 시를 사랑함이며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2000년 전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육화, 말구유에 오심도 그 겸손한 사랑 탓임을, 그 아름다운 정서 속에 젖어서 11월의 서정을 맑게 가능하며, 아두!



이중희 (공대 53)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는가?

우선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부터 한다면 "미국에 인종 차별은 절대 없다"가 나의 답이다. 하지만 인종 차별이 아닌 인간 차별은 대단히 심하다. 오히려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라는 한국이다.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했거나 또는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곧 알 수 있다. 우선 간단한 예를 몇가지 들면 가끔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대학 교수를 한다는 사람이 미국의 인종 차별 얘기를 하며 마치 자기도 피해자 인양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교수란 사람은 미국의 대학 교수의 월급이 인종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전공 과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일 그 교수가 내 동생이었다면 "야 이 녀석아! 그런 헛소리 떠들지 말고 억울하면 다시 대학에 들어가 월급 많이 주는 계통의 공부를 해라"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법원의 판사를 거쳐 법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명문 대학의 물리학과에 들어가 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구 교수로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발전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오래전 미국에서 실내 금연법이 생겼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김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게을러서 영어 한 마디 못하고 정부에 세금을 일전도 안낸 주체에 정부에서 거저 주는 돈을 받으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적게 준다며 정부를 비판을 하는 사람의 불평을 가끔 듣는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흔히 HT (Human Trash)라고 부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사람은 싫어하고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것은 인종 차별과는 다르며 인간 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 차별을 받는 것은 한국사람이 자청해서 만든 나쁜 습관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2년(?)까지 매년 한국 정부의 공무원 20명 씩 미국에 와서 2주간의 민주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강사로는 미국 정부의 관리들이었고 그 중 내가 하루를 '미국의 정부 조직과 환경 정책'을 가르쳤다. 아침 8시에 시작인데 9시가 넘어서야 하나 둘씩 나타났다. 강의를 시작하자 30분정도 되니까 전부 줄

고 있었다. 화가난 나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공무원 맞아요?" 하자 그 중 한사람이 "새벽 5시까지 고스톱 치느라 한잠도 못잤습니다"가 답이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 하고 넘어 갔지만 영어로 강의를 하는 다른 교수들은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고, 자기 직장에 들어가 동료들이나 또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는 뻔한 일이다. 한가지만 나쁜 예를 더 들자면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미국 폐수처리 기술을 배우러 온 적이

"나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미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인종 차별 대신 정직, 근면, 노력,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충성하는 사람이 높이 띄우는 나라 임을 절실히 체험했다."

"남들이 어려워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성공하여 우뚝 솟을 수가 있고 또....무엇인가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을 우뚝 추켜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임을 알게 되었다."

있었다. 일본에서는 '구보라'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아침 7시에 출근했고 6개월 후에 귀국 후 자기가 배운 것을 영어로 책을 만들어 자기가 배운 것이 맞느냐고 보내 왔다. 미국 관리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오겠다는 사람은 와야 할 날짜에 오지도 않고 교육기간이 끝날 무렵 영어 한 마디 못하는 병어리가 나타나 나의 사무실에 들어와 "미국 왔었는 증거로 아무 것이나 줘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와 농담을 잘 하는 미국 친구들은 나를 VIP (Very Impossible Piece)라고 하여 한바탕 웃기도 했었다. 또 한가지, 미국 사회에서 한국사람이 인간 차별을 받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는

'사장' 또는 '회장' 또는 영터리 대학에서 저희들끼리 주고 받고하는 박사가 너무 많이 널려 있다.

나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미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인종 차별 대신 정직, 근면, 노력,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이 띄우는 나라 임을 절실히 체험했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났을 때, 나는 서울 공대 일학년 학생이었다. 병역 의무가 없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이를 두살이나 속여 올려 그 당시 유행어였던 '소모품 소위'가 되어 수도 사단 최전방에서 죽고 죽이고 같은 고지를 뺏고 뺏기고 하는 전투에 참가했었다. 1952년 전쟁 중 미국에 와서 미군의 장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서울 공대에 복학하여 졸업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다. 군에서도 인종 차별은 전혀 없었다. 맨손으로 미국에 온 나는 약 2년간의 Homeless들과의 생활과 막노동 생활을 거쳐 500명이 넘는 대 회사의 화학 시험실의 기능공으로 들어 갔

나이가 자그마치 38세였다. Technical Director였던 Cal-Tech출신의 Otto Sass 박사는 곳 퇴직하여 Oregon 주의 모빌홀으로 이사를 간다며 자기가 평생 아끼던 고급 가구들과 TV까지 전부 나에게 주었다. 이래도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다고 하겠는가? 여기에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인종 차별과 월급을 불평하기 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하면 앞 길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Harvey 사장의 도움으로 대학원을 마친 후 공무원이 되어 정부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만드는데도 관여 했고, 주로 하수 파이프의 부식, 붕괴 그리고 폭발을 방지하는 화학과 미생물에 관한 연구와 Petroleum Refinery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감독하는 일을 20여년간 했었다. 여기에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 만을 하며 편안한 생활과 편안한 Retirement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려워 싫어하는 일을 하면 성공하여 우뚝 솟을 수가 있고 또 정부는 한국과는 달리 무엇인가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을 우뚝 추켜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79 ~ 1980년 California의 Torrance시 일대의 공기 오염으로 주민들이 구토, 기절, 설사 등의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나와 같은 과에 근무했던 John Milne 박사 (제2차 세계대전 때 Columbia 대학 화학공학 교수로서 원자탄을 발명한 Manhattan Project의 한 사람)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겼다. 그는 약 두달간의 조사 끝에 "이 냄새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다음은 Cal-Tech의 교수이며 우리 과의 직원이었기도 했던 Richard Pomeroy 박사에게 이 문제를 맡겼으나 그도 John Milne 박사와 같은 결론을 냈다. 높은 자리에 있는 Engineer들과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자기에게 이 문제가 맡겨질까봐 걱정거리들이었다. 이런 때에 용감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6.25 전쟁 때 용감했듯이 "Let me do it" 하고 자원해서 이 문제를 맡았다. 나는 사람들의 구토, 기절, 설사 등을 유발하는 공기 중의 화학 성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기 때문에 Torrance 시 일대의 큰 화학공장을 Inspector를 대동하고 일일이 방문한뒤, California Highway Patrol Police의 Helicopter Unit에 내가 방문했던 공장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공중 사진을 찍어 일주일 간 계속달라고 부탁했고 정부의 Surveillance Monitoring Crew에게는 내가 방문했던 공장의 하수 파이프에다 회사 물레 기계를 설치하여 그 여러 회사의 공업 폐수 Sample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약 6개월간의 조사 연구 끝에 Mobil 정유 회사에서 High Octane gasoline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Mercaptans이라는 화학 물질이 주범임을 찾아 냈다. 그리고는 모든 정유회사에다 Mercaptan Limit은 2.0 mg/L 이하 여야 한다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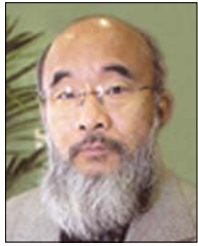
문을 보냈다.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즉시 출판하여 전국에 알렸고 Georgia 주의 Atlanta 시에 있는 미국 최대의 회의 장소인 World Congress Conference Center에 미국의 교수들과 과학 기술자들을 오게 하고 나더러 나의 공적을 발표하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1981년과 1982년의 Miss America를 초청하여 나와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해 주었고 기념 사진도 찍어 주었다. 이래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겠는가?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고 누구나가 공평하다는 예를 3가지만 더 들겠다. 내가 정부에 근무할 때 공군의 대령 출신인 George Mitchell이 제대 후 우리 직장에 job apply를 했다. George Mitchell은 공군 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New York의 Syracuse 대학에서 2학년 까지 다녔다고 한다. 우리과의 과장인 Jay Kremer는 "여기는 공군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하고 보니 3,2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체의 맨 밑의 노동일 밖에 없다 하니 까 그는 즐겁게 그 일을 하러 들어 왔다. 이럴 때 한국 사람같으면 "내가 나쁜 군데" 또는 "내가 뭐하던 사람인데" 하며 인종차별을 내세워 떠들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는 Inspector가 되고 싶는데 Inspector가 되려면 이공계의 대학 졸업을 해야 한다니까 그는 야간에 Cal State에 다녀 졸업 후 Inspector가 되었다. 그는 2차 대전 때 전투 폭격기 Pilot이었으며 한국 전쟁 때는 전투기 Pilot을 했었고 한국에서 온 나와는 특별한 친구사이가 되었다. 전쟁 후 오산 비행장에도 있었다 하며 한국 여자를 애기도 무척 재미있게 애기 했고 내가 나을 때까지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곤 했다. 다음에는 Joan Valgez라는 여자는 주일 미국 대사관의 영사였었고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까지 받은 여자였다. 우리 직장에 job apply를 했는데 우리 과의 과장이 "당신의 학력과 경험에 맞는 직종이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구하는 Typist 비서직 밖에 없다니까 즐겁게 일을 시작했다. 명량한 분이여 내가 농담으로 "Joan, 영사할 때 얼마나 와이로 먹고 Visa 내줬니?" 하면

"맞어! 우리집의 방하나는 돈으로 천장까지 딱 차있지!" 하며 농담을 받아 주기도 했고, 내가 부탁하는 type도 정성껏 찍어 주었었다. 나중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뜨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미국에 인종 차별이 없다는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다. Ellen Ekman 이란 여자도 대학원을 나오고 Texas 주에서 도서관장까지 했던 여자다. 그녀도 위에서 예를 들었던 Joan Valdez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여자였지만, 밑바닥 typist로 들어 왔지만 그녀의 근무 성적이 좋고 여기자기의 공로로 7년 후에는 Revenue Department의 Supervisor까지 하다 퇴직했다. 이 여자는 인종 차별이 아니라 어디서 한국의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물라도 성격적으로 한국사람을 싫어했고 내가 뭘 물으면 빼있는 대답을 하곤 했었지만 내가 Retire 할 때 Party가 끝난 후 나에게 자기 사진과 카드를 건네 주며 "Good luck to you"라고 했었다.

위에서 여러가지 예를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미국의 공평성을 설명했다. 오늘날의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1950년 후반부터 1960년 초반까지의 한국은 내가 잘 알지못한 그때의 한국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다. 예를 들면 신문 광고에는 "공대 졸업자로서 병역 필자"라고 했지만 들어가 보면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도 안나온 사람들이 끼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병역 기피자들이었다. 전부가 정치 뺨이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 기술계통의 과장, 부장, 심지어는 이사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고 가난했다는 한국이었지만 너무나 나라였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큰 공사 계약을 했었지만 미국에서 오는 영어 편지의 아래와 위를 구분 못하는 일자 무식자들이 전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의 한국은 세계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정부의 공무원들의 자질도 옛날의 가난했던 시절과는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발전은 애국적인 영웅들의 덕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미국에 인종 차별은 절대 없다"라고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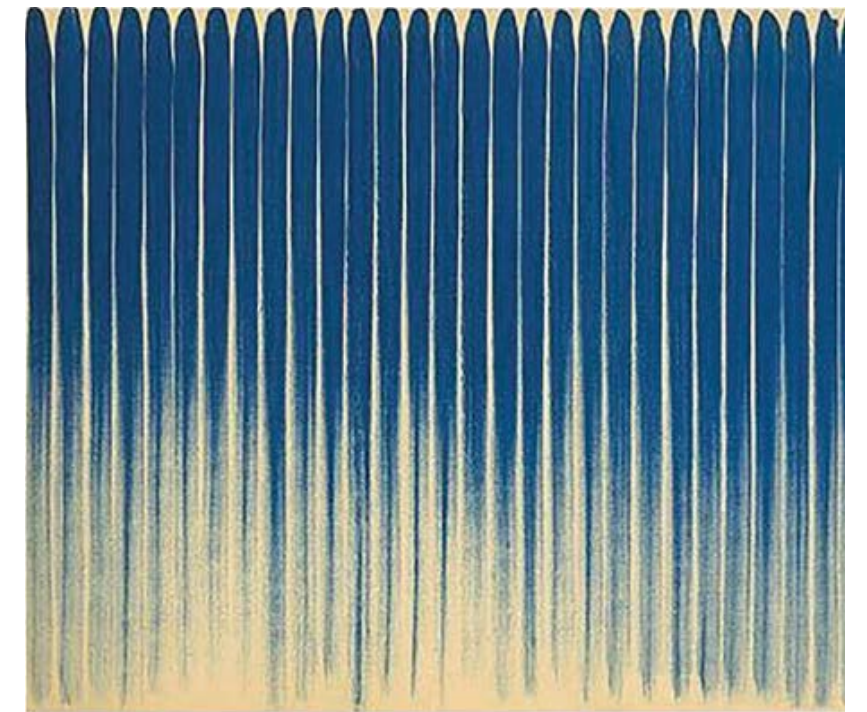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www.snuua.org



장소현 (미대 65)

단색화는 참 어렵네!

지금 한국미술의 대세는 단연 단색화(單色畵)다. 거의 열풍 수준의 인기를 누리는 모양이다. 미술시장에서는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귀하신 몸으로 대접 받고 있어서, 한국의 단색화는 이제는 아시아의 미술품 옥션에서 사실상 단연 주인공이 되었다. 국제적인 평가도 대단하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열린 <단색화전>을 비롯한 많은 전시회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단색화는 '해외에 최초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미술운동'이며, 이른바 미술 한류(韓流)의 선봉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식 모노크롬'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예 영어로 'Dansaekhwa'라고 표기한다. 단색화의 대표적 작가로는 김환기, 이



우환, 정창섭,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하중현, 김태호, 재미작가 안영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딱한 것은, 일반대중들은 이처럼 높게 평가되는 단색화의 미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고, 감동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색으로 가득 찬 단색화 앞에 서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마련다.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형체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리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정신을 중시 여기는 작품이다, 동양사상의 농축되어 있다, 전통에 기반을 둔 한국 고유의 특색을 띤 회화작품이다, 기본적으로 색이 아니라 사상의 문제다, 그냥 단색만 쓰는 것이 아니다, 동양 현대

미술의 특수성을 담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으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단색화의 대표적 작가인 박서보 화백은 "단색화의 중요 요체는 1)행위의 무목적성, 2)반복성, 3)그리면서 화면에 생기는 물성, 4)거기에 정신. 이 네 가지 요체가 합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 그 몸짓의 흔적이 단색화입니다. 단색을 쓰거나, 희고무레하고 다고 다 단색화라고 보면 안 돼요"라고 설명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단색화전> 기자회견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몸짓의 흔적이 단색화라는 설명인데, 이걸 보통사람이 알아먹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미술을 공부했고, 오랜 세월 미술 동네를 기웃거린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서양 사람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지금 한국미술계는 단색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토대가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해줄 명제가 필요하다. 그것도 서양을 향해... 라는 격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단색화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뿌리가 깊어야 할 것이고, 이론적 토대가 충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나 저나, 누군가가 단색화에 대해서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왜 훌륭한지 등을 알아듣기 쉽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하와이에 부는 한국책 독서 열풍

구자현 (사대 53)

하와이에 한국 도서 약 15,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맥컬리 주립 도서관(McCully-Mc'āi'i'i'i Public Library) 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 휴양지에서 하와이 주립대학 방향으로, 하와이 대학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곳이 하와이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책 독서 열풍을 일게 하고 있는 진원지이다. 이 도서관이 개관하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한인 동포들이 남녀 노소 구별없이 한국책 대출을 위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국 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릴만한 경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와이에서는 일본세가 단연코 강해서 하와이 경제 80%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맥컬리 도서관의 일본책 서가에는 몇백권도 안되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을 뿐이며, 그 또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꽃혀 있을 뿐이다. 반면에 한국 도서 코너는 가장 좋은 위치인 2층 서편 코너에 자리잡고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타 민족의 안내보다 더욱 크고 선명한 빨간 글씨의 안내 표지판이 천장에 걸려있으며, 독자들이 앉아서 열람과 독서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이 도서관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이 읽힌 책들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최명희 작 "흔뿔"이 1년 전쯤까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전질 10권 씩 두질, 세질씩 거듭 주문해와 7질을 공급했는데, 앞의 1권에서 5, 6... 권까지 언제나 서가에 남아 있는 일이 없을 적에 2년이상 계속 되었다. 둘째로 최인호 작 "상도"가 5권씩 5질 25권을 주문해 왔는데 지난 3년이 마찬가지로 현상이었다가 요즘에야 1~2권이 서가에서 눈에 띄고 있다. 조정래 작 "아리랑"과 "한강"도 상당 기간 그러했다. (이들 작품들은 이곳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입체 연속낭독 작품으로 선정되어 읽혀졌는데 그래서 더욱 많이 읽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작품들은 거의 2-5권 또는 몇권으로 된 책들은 2, 3질 씩 주문하여 계속 공급해왔다. 이렇게 모아온 한국도서가 97년부터 지난 7년간 약 15,000권에 이르렀는데 항상 2/3이상이 대출돼 나가서 도서관 서가에는 없고, 1/3정도 분량의 책들만 남아 서가에 꽂혀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서가에 남아 있는 책들이 별볼일 없는 책으로 생각되기 쉽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같이 평생을 책을 좋아하고 낭독, 다독이 아닌 정독에 습관



며 그 중 한 책에 서명을 남겨주고 갔다.

1회 대출 기간 3주로, 표지 안쪽에 70회 이상의 스탬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년간 좀 그렇게 여러 번 대출되면 헌책이 되어 그런 책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 도서들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소장 도서 권수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계속 주문 공급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 마련이 긴급한 일이기도 하다.

2002년 무역협회로부터 \$10,000을 보조 받은 적이 있다. 회장이 몸소 이 도서관에 들러 본 후 하와이에서 일고 있는 이 막중한 사업을 실감하고 지원해 준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한 분은 여기 저기 지원을 구걸하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 이 분은 와이키키의 한 호텔에서 보석가게를 경영하는 분인데 처음 5년 이상을 해마다 1만불 이상을 도서 구입비로 지원했다. 하와이 에서 다지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일을 해보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다. 듣고 보면 기이하지만큼 우연이란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전혀 우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리하다.

1996년 11월 하와이 주 정부가 "한인들이 책을 읽지 않아 한국 도서 대출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1997년부터 한국어 도서 구입 예산(년 2,300불) 전액을 삭감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처름 보도되었을 때, 이 기사를 읽고 하와이에 사는 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또 동포 사회 발전에 한국 도서 구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 정부에 \$2500을 기부하고 한국 도서를 계속 구입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기부금으로 한국 도서가 턱없이 비싼 값으로 구입이 되고 서적 선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저오기 화가 났단다. 이것을 시정해 보려고 1999년 4월 "Moon's Book Club"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 1997년 이전까지는 한국 도서가 100권 미만에 불과했고,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책선의 중국 도서 옆에 초라하게 비치되어 있었다 한다. (1997년 12월 이후부터 매년 2,000권 정도 구입을 계속해 5년만에 10,000권 확보를 달성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었다.

나는 1999년 9월에 하와이로 이민와서 그해 11월 초에 이곳에서 발간되는 한국어 신문에 문스 북클럽 모임이 소개되어 참석하게 되었고, 그 때 이 분을 뵈게 되었다. 이 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던 중 깊은 감동을 받았고, 더욱이 내가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으니 이 보다 더 좋은 봉사 기회가 없겠다 싶어 이 일에 자원봉사를 자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때는 책이 5,000권 쯤 된다고 들었다. 그 후 5년동안 도서관이 열리는 날은 거의 매일 한번씩은 들리는 이 곳에서 한국책 독서에 흠뻑 빠져있다. 아침에는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오며, 여기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한국 신문 2종은 차를 기다려 읽어야 한다. 신문은 대출이 안되고 그날 신문은 철해 걸어놓고, 지난 신문은 전날 신문은 맨 위로 해 역순으로 포개 놓는데 대개 몽땅 갖다 열람 테이블에 앉아 읽고는 거의 손서가 뒤섞여져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서, 다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신문은 종종 없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자주 없어지므로 신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야 함을 주시시키고 가져 간 사람은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안내문을 걸어 놓았더니 실통하게도 없어졌다가 하루 이틀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침 일들을 정리하고 가정 주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언제나 이 시간대에는 동포 부녀자들이 찾아와서 읽고 싶은 책들을 고르기에 분주하고 거의 한아름씩 대출해 가곤 한다. 그 모습을 보면 절로 마음이 흐트해지곤 한다. 여기 하와이 주립 도서관 도서대출 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한번에 권수 제한없이 3주간 무료로 대출해 갈 수 있고, 기한내 다 읽지 못하면 다시 1회 3주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대출카드는 하와이 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신분증, 거래은행 Check Book 등)을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즉석에서 도서 카드를 발행 받을 수 있다. 나는 미국의 발전이 도서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이 학교와 일반 관공서에서는 휴일인 토요일에도 도서관이 오후 다섯시까지 개관하고, 주중 하루는 밤 8시까지 열린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오후 두 세시 지나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데리고도 많이 온다. 역시 애들은 만화들을 많이 본다. 숙제때문에 과학 시리즈들의 대출이 많이되고 있다. 어느날은 고교 진학할 소녀가 일곱살만 막내 동생을 포함 세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도서관까지 싸가지고 도서관에 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으며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민 온지 두달이 됐었는데 본토로 이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신문사 여기저기 눈에 띄어 그들의 책 읽는 모습이 컬러 사진과 함께 기사화 되기도 했다. 만연자가 상당 수준의 책을 읽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

여기서 왜 이 미국땅에서 한국책 독서 열기가 이렇게 일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민 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연로하여 일자리 얻을 데가 없어 무리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책읽기가 시간 소일하기에 얼마나 값진 것인가. 또 나처럼 책읽기 중독이 된 사람은 하와이에 손쉽게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어 뉘니 뉘니 해도 이민 생활의 고달픔에 쌓인 스트레스의 해소책으로 우선 한국책 읽기만한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

미국 도서관에서는 대출이 잘 안되는 책은 폐기시킨다. 무슨 내용의 책이던 대출이 잘되면 거의 대우를 받는다. 한국서 들어온 문학 전집류 더구나 사상 전집류 등과 같은 깊은 학문 서적들이 미국 일반 도서관에서는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 또는 어느 부분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일반 도서관에 참고할 책이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다.

미국에 이민 와 얼마안되어 어느 여자분이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애가 집에서 한국말을 안하고 영어로 말하면 밥을 안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신선한 충

격을 받기도 했다. 71년에 LA에 사는 친구가 아들 둘을 데리고 이민와서 미국 학교에 다닐 때 한국말을 잊을까봐 날마다 집에서 한국어 동화책을 베껴쓰게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이민와서 2년 쯤되어 이 곳 한국어 신문 기사에 LA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대학 입시모의 시험에서 우수자 10명 중 중국계 5명, 한국계 3명, 기타 소수 민족계인데 기사가 중국계 학생과 인턴비디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은 한결같이 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한인학생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는 것이고. 수년 전만해도 이같은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 비율이 한국계 학생들이 중국계 학생들보다 훨씬 높았는데 역전된 것이 두 민족간의 자기 정체성 확립 차이에 기인된 것 같다고 그 기사가 언급한 적이 있다. 한국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음이 안이해져 고국에 대한 애착이 덜해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경향으로 흐르게 아닐까. 결국 이것은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모국어에 소홀한 것



이 미국서 활동할 실력을 닦는데도 나쁜 영향이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한인들이 정확하게 절실히 깨달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 서적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일 모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낮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며 살아야 하는 한인 가정이면 많기 때문에 부모 자녀간에 대화조차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데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현실에 압도당해 살아가면 희망은 없을 수 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심신 피로를 씻어내고 신선한 힘을 솟구치게 해주는데 좋은 책을 읽으므로서 얻는 효과만한게 또 있을까. 실업 상태의 곤궁한 지경에서도 책만 읽을 수 있으면 완전 실업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상 여러 언급에서 한국인의 한국어 책 독서가 얼마나 중요인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역시 한국어로 된 양서를 적시에 바로 구해 읽기가 쉽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곳 하와이에 있는 한국어 책 파는 서점에서는 신문은 한국의 3배 가격이고, 팔고 있는 한국책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미국에 이민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이 한국책

을 읽으면서 살아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하와이 주 상원의원 2명 중 한사람이 일본계 2세 이노우에씨인데 지난 50년 가까이 계속 위원직에 있고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어 중도하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미국 전체 상원 위원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막강한 실력자이고 하와이주의 경제권을 일본인들이 80%이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유태계는 전세계 인구 비율 0.2%라고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태계는 미국 인구 비율의 2%는 더 되겠지만 이들은 미국에서 금융, 언론, 대학 교수 부분에서 막강한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유태 나라와 중동 아랍계와의 대결에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편중 지원하는 것을 전 세계 인구의 90%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해서 재작년에 100년이 되었는데 중국인들의 이민 역사는 1789년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어 200년이 넘고 일본일들도 우리 한인들보다는 훨씬 먼저이긴 하지만 만일 우리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와서 내내 하와이에 발을 들이고 뿌리를 계속 키워나가 성장 번영했다면 일본을 제치고 우리 한인들이 하와이 경제 등 여러분야를 석권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와서 사탕수수 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그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상당수가 샌프란시스코 등 미 본토로 옮겨갔다. 이것이 그 가문으로서는 각기 성공일 수도 있다. 하와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불과 열마 안되는 2세들의 자녀들 중에서 문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 하와이 주립대학 이사장등 2기에 걸쳐 지낸 김창원 회장. 그 밖에 하와이주 상하의원을 많은 변호사들이 나왔고 해리 힐로 시장, 도널드 휴 전 경찰국장이 배출되었다. 앞으로 더욱 이곳 한인들의 2세 3세들이 다방면으로 크게 성장하여 하와이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한다.

한국세가 급속히 성장하는데 한국책 독서 붐이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와이 대학의 손호민 한국어 교수가 여러가지 예로 들어서 "우리말을 배우면 성공 범위가 넓어진다."고 역설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다.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맥컬리 도서관에 와서 한국책 코너를 보고 놀라서 도서관 측에 왜 한국 도서만 우대하느냐고 가끔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은 이곳 한인들 도서 대출 빈도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도서 보충 공급은 한국 도서 주문 공급처럼 저렴하고 신속하게 되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 도서 책 파는 서점에서는 신문은 한국의 3배 가격이고, 팔고 있는 한국책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미국에 이민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이 한국책

하와이 교향시

구자현 (사대 53)

언제나 해맑고 온화한 기후
때로 햇볕 따갑긴 하지만
어디나 그늘에 서면 그 시원한 바람의 맛

어디서나 쉽게 만나 신선한 기분이 되는
그리고 우람 웅장한 몇 백년도 묵었을
하나 하나가 다 작품 같은
저 잘 생긴 관상수목 정말 신기하구나

섬 돌레 어디나 오색의 바다
보이는 곳마다 해수욕장
즐기는 인적은 드문드문 한가로울 뿐
이 또한 낙원의 여유로움 아니던가

와이키키 해변 서편 하늘 온통 고운 일몰광경
동쪽 하늘엔 자주 쌍우지개 방구
천사들 넘나드는 다리

또 한켠 하늘 질러 한국 미국 본토 오가며
반짝 비행기 뜨고

저기 오색 바다엔 줄줄이 흰 물결에
파도타기하는 신들린 모습들
그 또한 천국 옛보기임인가

일년 철철이 어이 퍼져 갖가지 초목들의 색색꽃들
그 사이사이 그리고 그 어디에나
우리에게도 친화한 아리따운 새들 무리
예가 천국의 동산 낙원이지

까지 많이 읽혀 남은 책은 폐기 처분하면서 15,000여 권이 확보되기에 이르는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다. 앞으로 급성장 기대되는 이 곳 한인세가 고국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 전국에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LANA 뉴욕에 한국책 1만 5천권 보다 훨씬 많이 소장한 주립 도서관이 꽤 있겠지만 한인 인구 4만에 연 5만 회의 도서 대출에 이르는 비율로 한국책 독서 붐이 일고 있는 곳은 이곳 하와이 말고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신간 베스트 셀러가 적시에 주문 공급되고 있질 못할 것이다. 실상 뉴욕과 시카고에 사는 동포 중 한 분이 하와이 맥컬리 도서관 한 국도서 코너에 대한 말을 듣고 어떻게 이와같이 될 수 있었는지를 문의하는 전화를 몇 번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일을 시작하신 여사의 부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은 연방 정부의 요직에 상당한 지위의 공무원인데 결단코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대단한 역할을 해 온바 있다. 하와이 주 정부 도서관 관계 상위 직원들과의 모임

에 매번 참석하셔서 아는 사람끼리 은밀한 담소를 나누는 방법으로 나긋나긋하게 절실한 여러 실정을 설명해서 납득시켜 우리의 취지대로 따르게 하곤 했다. 이 분은 625 직전 약관에 미국에 유학와서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만한 인사를 만나기가 미국 전역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분의 힘으로 주립 도서관 내부에 한국 도서 관계 사무실을 확보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장황하나마 역설한 것은 한국책을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회는 나라를 통한 무역도 잘 되고 한국의 국력 신장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글을 쓴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고구려사 문제, 독도 문제도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철두철미한 지원을 받듯이 우리도 미국에서 성장한 우리 한인 후손들 중에서 세계적인 학계, 정치계, 재계의 특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여 이들의 도움으로 우리 거래의 뜻대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밝혀 주고 해결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두고 두고 염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일단 (미대 55)

뽕뽕두에서

2017년 9월 20일부터 파리의 현대 미술관 뽕뽕두(Centre Pompidou)의 40주년 기념전에 고암 이응노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동시에 뮤세 쉘니쉬(Musee Cernuschi)에서도 대대적인 그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파리로 갔다. 1989년 1월 이응노 선생은 귀국허가를 받지 못한 중에 서울의 호암 미술관에서 그의 전시회가 열렸고 그 리셉션이 열리고 있는 시간에 파리에서 돌아가셨다 (1904년 ~1989년 1월 9일). 고인이 된지 28년 만에 그의 전시회가 뽕뽕두에서 열린 것은 관계자와 가족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의 작품의 높은 품격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의 감회 또한 말로 하기가 어렵다. 아래의 글은 서울에서 그의 전람회가 열린1989년 1월의 월간 미술 창간호에 실린 내 글과 내가 책을 내면서 (정중동 최일단 발바닥 문화 예술 기행) 보충한 글들이다. 이로써 고암 이응노 선생에 대한 생각의 편란을 피력하고자 한다.

고암 이응노 선생과의 만남

1972년 봄 방콕에서 출발하여 동경하던 도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아파서 며칠을 힘들게 보내고 세 식구 중 나만 볼어가 가능했으므로 장래가 막막한 중에 대사관에 주소를 문의하여 약소(Haxo)의 고암 선생님 아틀리에를 방문했다. 단 순히 여른을 찾아뵙고 인사한다고 생각했던 노릇이 나의 대단치도 않은 소질을 보시고,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날 때부터 준 것인데 그것을 닦아서 쓰지 않는다면 나쁜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들은 알아야 할 것이여.” 이렇듯 귀중 같으면서 따뜻한 칭찬으로 수하에 붙들어 주어 3년 후 그곳을 떠날 때까지 매사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30년 맞잡이로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86년에 힘든 여건인데도 50이 지난 나이로 북경에 유학가는 용기를 일으키는데 힘이 되었다. 남편은 뉴욕으로 가고 나와 아들 아이는 파리에 있기로 하여 아이를 5학년때 입학시키고 1964년에 시작한 고암 선생님의 동양미술 학교와 재정러시아의 물리학으로 파리로 피해온 러시아인이 세운 세르니쉬 박물관(Musee Cernuschi) 부설 동양미술학교에 출석하였다. 고암 선생님은 두 곳의 학교와 출품에 쫓기는 일정이어서 새벽 같이 일어난다. 이윳이 다 자고 있어도 세수도 요란히 하고 체조로 몸을 다스리고 일을 시작한다. 아침을 간략히 마치면 금방 또 마음이 급해져서 아직도 아침상에 앉아 있는 부인께 ‘오늘의 할 일’(한 달이 걸려도 안될 일들)을 적은 노트를 드리밀

어 재촉한 연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과 몸이 작품으로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나 금방 작품으로 생각을 옮길 수 있는 선생님이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씩씩 종이나 붓소리 뿐이다. 화선지를 발라서 직사광선을 차단한 벽 전체만한 유리문으로 되어 방이 뽕뽕두 밖아오는 공간에 선생님의 움직임도 하나의 무성영화 같다. 그리고 작품이란 그 제작 과정 중의 정신과 육체의 동시적 활동 자체를 말함이 아닌가 하고, 나중의(1974년) 르 모안(Annick Le Moine) 화랑에서의 서예전에서는 선생님의 행위와 무용이 작품과 어울린 좋은 전람회였다.

화랑에서는 작품이 걸린 벽 아래에 자갈을 깔았고 은은한 조명아래 여러 남녀 무용수가 만들어낸 동작이 마치 오랜 풍상에 마멸되어 가는 비석 글씨의 획같다. 선생님이 손수 노끈으로 만든 붓으로 굉장히 큰 종이 위에 걸어다니며 글씨를 쓰고, 무용수들은 몸을 던져 글씨를 쓰니 종이는 볼 수 있게 남아 있고 몸의 동작은 잠시 공기를 흔들었다가 없어져 버렸다. 참으로 느끼는 바가 컸던 전시회였다. 시각, 공간, 시간의 종합 예술 행위였다.

이런 저런 일들

1975년 초라고 기억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파리의 미술인 단체를 만든 일이 있었고, 고암 선생과 의논도 없이 그분 이름을 명단에 넣었다. 나중에 통고 받고 알게되자 몹시 언짢아 하셔서 알아보니 나의 미술대학 후배인 O가 책임지는 입장에 있어서 나와 함께 사전 상의 없었음을 용서를 구하려 간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취지만 좋다고 누구나 뛰어오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일깨움이었고, 완곡하게 마음을 풀지 않다가 그 후배의 할아버지께서 31운동 때, 33인 중의 한 분인 오세창 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애국심에 대한 존경과 그 손자로 다시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결과가 되었다.

선생님의 형제 한 분이 만주로 독립 운동하러 가서 소식이 없고 일제의 수탈을 몸소 겪은 분으로 늘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그분의 애국심(다분히 민족주의적)은 불의에 당해서는 남의 박(朴)도 북의 김(金)도 가리지 않는다. 나의 시어른 돌아가신 조의편지 말미에도(1980)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하면 아무런 욕망(아마도 의욕인듯)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 할 말 안할 말을 계산해서 적당히 처신하는 세상살아가는 기교에 서툴러서 순진무구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한 혐오의 정도가

매양같아서 같은 일을 가지고도 매번 분개하니 처음듣는 사람은 자기를 만나서 선생님이 특별히 분개하고 주장을 편다는 인상을 받게되고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그분 자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할 것이다.

1974년 초로 기억되는데 모신문 지상에 화가 N과의 논쟁이 있었을 때, 한국으로 보낸 원고 정리를 도우며 그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당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던 K화가가 N 씨를 반박하는 글을 실어서 끝



Lee Ungno (1904-1989)
Bambous, 1979, 138 x 34.6 cm

냈었다. 비슷하게 작품과 관계되는 일로 F 화랑과의 부당한 계약을 몇년씩이나 걸려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곁에서 보며 작품에 관한한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철저한 보호로 지금은 보기드문 순수한 장인정신을 보았었다. 한국에 있을 때, 작품관리에 소홀해서 지금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고 소그림은 가짜도 나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다시 수집해야 할 것같다 했는데 그 가짜도 그런 소는 목의 주름 등 고암 선생의 소보다는 이중섭의 소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내 생각은 고암 선생의 그림 중에서도 소는 특히 흉내내기 어려운 그림이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

재료의 탐구

파랗게 젊은 예술가, 대가, 화백이 유행가의 사랑 타령처럼 흔한 이때에 참 예술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때때로 생각해 본다. 고암 선생님은 사서 쓰는 물감에 만족하지 않고 구리판에 초산을 뿜구어 백록색 채색을 얻어내기도 하고 식물 열매를 우린 물, 석류 씨 등황색같은 물도 시험해 보며 배접까지 하여 빼어나오느가 실험한다. 쥐꼬리로 만든 붓은 작지만 꼬불꼬불한 특별한 먹자국을 만들어 내며 르 모안 화랑의 서예전 때 쓴 붓은 삼 노끈의 끝을 풀어서 묶어 만든 거대한 것이었다. 실은 서투른 사람들은 좋은 붓의 덕이라도 보는 것이고 통달한 사람들은 빗자루같은 노끈 붓으로도 예술품을 만들며 이런 사람이 예술가라고 불리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선생님이 처음 파리에 도착(1958년)했을 때, 길가에서 잡지를 수집해서 색지를 가려내어 붙이고 깎아내는 꼴라즈도 하였고 쓰다버린 화선지는 풀어서 풀을 섞어 조상(彫像)도 빚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예품같은 그릇도 만드는 데, 마르면 단단하고 가벼워 깨지지도 않는다. 그저 듣고 보고 만지는 모든 물체에 지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집중하여 놓치지 않고 작품에 사용하는 생각인데, 가만히 보면 머리 속에 새로운 구상이 자꾸 떠오르니 손(몸)이 그것을 표현해 내기에 바빠서 모든 것은 일(작업) 다음이다.

도살장에 새벽같이 내달아 뼈를 얻어다가 그 질감과 생김새에 따라 짝과 쪼고 냄새가 난다고 무얼 넣고 삶아 내고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일에 몰두해 있다. 한번은 넓은 작업대가 딱 찰만큼의 나무들이 있고 사방에 작은 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종종 박아서 털실을 가지고 따뽀스리(Tapisserie)를 짜는데, 방법도 일정하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얹어매고 꼬아서 비틀어 붙이고 해서 나도 해보게 되었는데 명석을 상상하며 깎던 것이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어서 감정이 출렁이는 자유자재한 선생님의 솜씨와는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 나는 드디어 따뽀스리 선생님까지도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따뽀스리 공장인 스위스 로잔네(Lausanne)에서 불란서 정부가 매입한 선생님의 따뽀스리의 원본을 짜는데, 숙련공도 선생님의 재료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곳에 가서 털실을 풀어서 몽쳐가며 지도하고 시범을 보이고 온 일이 있었다.

1973년, 조각전에 출품했던 작품은 여러 개의 통나무 토막을 꺾질을 벗기고 속을 파내고 야외의 풀밭에 전시하였고, 터진 나무는 잘게 쪼개어 가지고 와서 밀집된 빌딩을 내려다 본 것같은 부조를 만들다, 나무를 타고 앉아서 깎느라고 바지에 진이 묻어버렸는데, “내 바지하나 사주지”하시고는 아직 사주지 않으셨다. 발처럼 위는 대나무도 쪼어 오고 나무 판대기 상자 등 늘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농담해 볼 새도 없고 민족주의 같은 뜻이 있는 말에서부터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고 순진하다고 할 만큼 정색을 한다. 그러나 창작 행위에서는 많은 에피소드와 누구나 경이의 눈으로 쳐다

볼 수 밖에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하니 유모어조차 작품을 통해서만 한다고 보았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나 보다. 사모님이 털로 짠 담요를 사와서 책상 위에 놓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그건 이미 선생님 손에 작살(?)이 나 버렸다. 선생님은 조그마한 전기 막대기가 있는데 날같은 것을 녹여서 땀질할 때 쓰이는 끝이 휘청거리는 금속이다. 그것으로 무뎠어 있는 털을 태워서 이발하듯 선을 파고 면으로 쪼개서 한장의 벽걸이 만들어 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셨어”라고 말하는 사모님의 표정은 무한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으로 환하였다. 항상 창작 의욕이 샘 솟고 새로운 생각을 피력하고자 헤트기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여명에 일을 시작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동양 미술 학교(Academie de Peinture Orientale)

외국에 나가서야 실감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미술학교에도 서양화과는 있는데, 서양의 어느 미술학교에도 동양화과는 없다는 사실에 접하니 어째 묘한 배반감이 슬그머니 인다. 1964년 고암 선생은 그러한 미술 도시 파리에 동양미술학교를 인가받아 개설했으나 역시 기발한 착상이다. 1971년에는 세르니쉬 동양 박물관에도 부설 동양미술학교를 개설하여 양쪽 레슨으로 일주일에 세번의 강의를 있다. 나는 1년 이상 레슨비도 내지 못하고 배웠고 레슨 전후에 박물관 앞 카페에서 잠깐 서서 마시던 카페울레 향기며 박물관 뜰의 철따라 바뀌 피는 후박꽃 마로니에 등 모두 파리의 젖은 공기와 함께 그리운 추억이다.

전통기법의 현대적(과학적) 해석

왜?를 비롯한 여섯가지 물음(어디서, 언제, 누가..)의 해결을 보지 않고는 한발짝도 내딛지 않는 논리 속에 사는 서양사람들에게 ‘난초는 이리, 이리 그리는 법이니라’라고 해봤자 헛일 일 것이다. 붓의 털에 먹물이 묻어서 모세관 현상이 생기는 물체의 분자와 거기에 가해지는 사람의 팔을 통해 전해지는 운동력이 조화롭게 어울리면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손을 선생님이 덧잡고 붓을 움직여서 그 미세한 동작도 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지도한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장님도 붓을 쓸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최선의 방법이다.



Lee Ungno (1904-1989)
Sans Titre, 1961, 54 x 40 cm

사군자(四君子) 중 난초를 예로들면 봉안(봉의 눈), 파 봉안(봉의 눈을 파헤치려는)의 법에 따라 접근하기 보다 차라리 잔디 한포기를 자세히 사생하며 거기서 봉안과 파 봉안의 기법을 유추해 낼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전통의 이해도 자연을 통해서 하게 하는 방법이다.

동양화에서는 팔자(八字)나 정자(井字)와 같은 화면은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일부러 정자(井字) 구도의 녁쿨을 그리고

아무 변화도 대치나 충돌도 일으키지 않아 헛 일을 한 것이 되어버리므로 이런 구도를 피하라 했으나 현대화에서는 동서양화를 막론하고 선 이외의 여러가지 요소의 도입 활용으로 그러한 구도라도 회화성을 부여하여 작품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원칙을 그냥 두고도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결국 예도가 따로 없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1988년 8월 24일 파리 드골 공항에 내려 바로 택시로 약소에 들러서 선생님이 개신 곳의 안내도를 공시예즈에게서 받아 몽빠르나스 역으로 직행하였고 6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북서쪽 끝에 있는 해안 도시 동양미술학교의 여류 사생 실습지인 모홀래(Mortlaix)에 저녁에 도착하였다. 선생님이 목고 개신 작은 마을까지는 택시로 한시간 남짓 걸려 어둑하여 도착했다. 저녁 식사 후에 자정까지 담소하다가 나와서 작은 호텔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역으로 나가 파리로 돌아왔고 다음 날은 종일 올세 박물관(Musee D'Orsay)에서 보내고 27일에 뉴욕으로 돌아 오는 바쁜 걸음이었다.

30년을 한국을 떠나 사시고 그간의 시끄러웠던 일로 선생님의 예술가로서의 진면목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마다 탄소리들이다. 그분은 예술가이면서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고 감성적인 분이다. 너무도 인간적인 그의 특성을 그의 예술의 독창성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의 성숙을 바라는 것은 나만의 욕심일런지, 나는 두 분의 총명사와 세 분의 문화원장께 선생님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한국에도 봄은 올 것인가? 나는 그것을 믿는다. 국가(國家)란 넓은 의미의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2017년 가을인 지금, 봄은 도래하였는가? 나는 일년의 시작을 가을로 생각한다. 가을에 봄은 잉태되고 찬서리, 눈과 비를 품은 겨울 대지와 공기는 봄을 익히는 자궁이다. 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예감할 수 있는 가을이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품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요.
<편집부>

동창회비(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한정민 (농대 87)

산티아고 가는 길 (Camino de Santiago)

십여년 전 친구로부터 '스페인에 한달 내내 걷는 산티아고란 순례길이 있네'란 말을 처음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을 찾아보던 기억이 새롭다. 갈라진 흥해 바다 사이에 놓여진 바다길처럼, 사진 속에는 푸른 하늘 아래 끝도 없이 펼쳐진 들판을 가로질러 지평선에 닿은 외출길 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걷고 싶다'던 꿈이 드디어 지난 9월 필자를 그 길 위에 서게했다.

불혹의 나이에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졸업 후에는 비영리기관에서 열정을 다해 일했던 지난 9년.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몸과 굳어진 마음한테 미안해서 휴직서를 내고 몇달 동안 쉬었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으로 떠난 후 덩그러니 드러난 빈둥지,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감수성 풍부한 갱년기 아줌마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다. 그렇게 제2의 사춘기를 보내던 중, 지인에게 빌린 산티아고 가이드 북에 씌여진 '우리의 삶에 파문이 인다면... 산티아고로 떠나야 한다'는 문구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날부터 오랜 버킷리스트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길은 시작되었다.



한번도 가본적 없는 스페인, 한달 동안 18lb 배낭을 매고 500마일(800km)을 걷는 일. 매일 평균 17마일을 걸어야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평소엔 등산과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막상 낯선 길을 한달 동안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가이드 북과 인터넷을 통해 두달 동안의 사전준비를 마치니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40대의 마지막 생일 날, 오랫동안 꿈꾸던 산티아고 순례길에 첫발을 내딛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주의 주도인 산티아고의 정식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빛나는 별 들판의 산티아고)'다. 스페인어 Santiago는 우리말로 성(Sant) 야고보(Iago)로 불리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의 한명이며, 영어로는 성 제임스(St. James)로 불린다. 어부였던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 복음전파

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까지 걸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포교활동은 실패에 가까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했다.

야고보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배에 싣고 그가 선교하던 스페인 북서부 해안 'Finis Terre (땅끝)'에 묻었다. 잊혀졌던 그곳은 813년 한 수도사가 '밝은 빛/발'에 이끌려 이곳을 찾아왔고 그때 발견된 유해가 성 야고보의 것으로 알려지며 그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산티아고를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하여 기독교 3대 성지 중 한 곳이 되었다. 11-12세기에 순례자가 급증하면서 교회와 순례자 숙소(알베르게)가 생겨났고 그 이후 천년을 이어오는 순례길이 되었다.



1982년 교황이 산티아고를 방문하면서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유럽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1987년 유럽 연합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유럽의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1993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연금술사》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이 길을 걷은 후 더욱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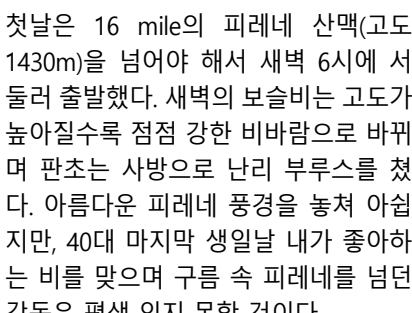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혼자 가? 위험하지 않아?'였다. 순례자 사무실에서 이 길을 100km 이상 걸은 사람들에게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2016년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약 28만 명이 순례자 증서를 받았다. 이중 절반이 7-9월에 걸기 때문에 혼자 가지만 혼자 고독을 즐기며 걷는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마지막 100 km 구간에는 20-30명이 그룹으로 걷게 되어 더 이상 순례길의 고즈넉함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쉬웠다.

흥미로운 통계를 보면 10년 전 41% 이던 여성 비율은 48%로, 60세 이상은 5%에서 18%로 증가했다. 2006년 휠체어를 타고 완주한 순례자가 1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25명으로 늘어났다. 순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55%)이고, 다음은 이탈리아(16%), 독일(14%),

미국(10%), 포르투갈(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인 완주자는 4,544명으로서 전체의 3%(9위)를 차지하고, 비서구권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다. 태극기와 한글을 자주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큰도시에는 컵라면과 라면도 판매한다. 아침기는 모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과 흑인, 동남아시아 사람은 10명도 안되었다. 대부분의 순례자가 종교적/영적 이유로 이 길을 걸지만 약 10%의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문화 체험과 내면의 휴식의 목적으로 이 길을 걷는다고 한다.



파리에서 5시간 기차를 타고 프랑스 남부 생잔 피드포르에 도착한 후 순례자 등록과 순례자 여권을 받았다. 매일 성당이나 알베르게(숙소)에서 순례자 여권에 도장을 받아야 산티아고 도착 후 순례자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유럽 각지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필자를 포함한 약 65% 순례자가 프랑스 국경인 생잔 피드포르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는 '프랑스 길'을 걷는다.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약 500마일(800km)이고, 하루 평균 17마일 걸으면 한달이 걸린다. 순례자들 중 택시나 버스를 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두 발에만 의존하여 500마일을 완주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순례자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으며 "Buen Camino(좋은 길)"란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말이 통하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다가 한쪽이 쉬어가길 원하면 다시 혼자 길을 걷는다. 이 길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은 자유롭고 상대방에게 기대가 없어서 섭섭할 것도 없다. 오늘 어떤 길을 얼마만큼 걸을지도 모른다. 그냥 내 앞에 난 길을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을 뿐... 둘째날 아침 한 순례자에게 날씨를 물으니 여기서는 확인을 안 한단

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해가 강하면 모자를 쓰고... 주어진 날씨에 순응하며 걷는다고. 그래서 나도 그냥 떠났다. 필요한 건 배낭 안에 다 있으니까.

첫주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과 호들갑을 떨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들뜬 마음에 피곤도 잊은채 걸었다. 집 떠난지 일주일쯤 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짐을 싸고 풀며 하루종일 걷다보니 입안과 혀끝이 헝기 시작하고 무릎과 발목과 어깨가 점점 아파왔다. 처음 3일동안 계속 20마일을 걷은게 아무래도 무리였나 보다. 걸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내 모습을 만나. 여기까지 와서 누구랑 경쟁을 한다고 이리도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더 자주 몸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게된다.

둘째 주에 들어서니 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과 무릎과 발목 뿐 아니라 배낭 무게로 인한 어깨와 허리 통증이 커지면서 매일 저녁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여기 저기 붙이고 걸었다. 첫주는 다양한 순례자들과 삶을 나누며 에너지가 밖으로 향했다면, 둘째 주부터는 지치고 불편한 몸의 소리에 점점 귀가 열렸다. 오늘 몸 상태는 어떤지 살피고 몸이 '그만 쉬고 싶어'라는 싸인을 보내면 13-16일 걷고 쉬어가곤 했다. 그렇게 4-5일 동안 무리하지 않고 몸과 대화하며 걸다보니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 다시 18-20마일을 걸을 수 있었고, 14일이 되었을 때에 순례길을 절반을 마칠 수 있었다. 걷는걸 워낙 좋아하고 씩씩하게 잘 걸었지만 이렇게 잘 걸을 줄이야... 스스로에게 놀라며 이제 특기와 취미란에 모두 '걷기'라고 써야겠다 생각하며 혼자 피식 웃었다.



열흘쯤 지나니 한동안 끊어지던 펼쳐지던 푸르던 목장과 황금빛 밀밭과 포도밭은 끝이 나고 아리조나처럼 붉고 척박한 광야같은 땅과 가난한 멕시코 시골 마을같은 풍경이 몇일 동안 계속되었다. 설레임도 찾아들고 몸의 통증도 줄어드니 3주째부터는 마음 속 깊은 곳에 두레박이 내려지며 잊혀진 기억들과 아픈 추억들, 놀러놓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하나둘씩 건져 올려진다. 내 속의 살아 숨쉬는 내면과 매일 조우하던 소중한 시간들. 엄마의 품 속 같은 하늘과 땅과 바람이 어루만져 주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 하루에 16-20마일씩 8-10시간을 거의 혼자 걸었으나 한뼘도 외롭다고 느끼적이지 않았다. 어깨에 짊어진 배낭이 한달동안 나의 전 재산이지만 마음은 풍성했던 시간. 살아가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과 삶의 '단순함'이 주는 풍요로움의 교훈을 그 길 위에서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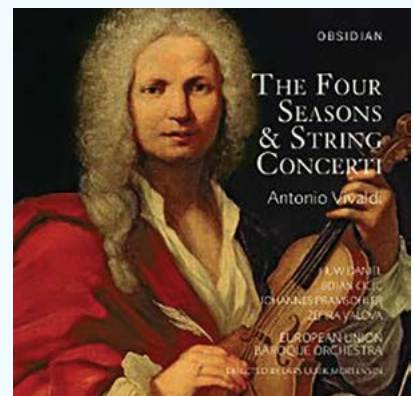


장수인 (음대 76)

가을음악으로의 초대

"Seasons come and seasons go, but the music is timeless~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을에 동행하고픈 곡들을 나열해 본다. 화음보스톤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며 그 무궁무진한 클래식 음악세계의 레퍼토리에 매료되곤 하니 굳이 개인적 선곡으로 가을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색하긴하다. 가을은 서정적이어 괜한 그리움에 젖어두고 싶은 계절, 세심 감사의 마음을 다듬어 보는 계절이기도 하다. 스산하지만, Thanksgiving을 맞아 온가족이 둘러 앉았을 때같은 안도의 따뜻함도 있는게 가을이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으로 활개치던 여름이라면 고운 비단실이 서로 비벼지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음같은 고혹적인 계절이 가을 아닐까싶다. 가을이면 생각되는 단상들... 주로 오케스트라 곡들로 동행해 본다.

Antonio Vivaldi의 Four Seasons 중 <가을>



안토니오 비발디가 1725년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가장 사랑받는 바로크 음악,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1위로 뽑히곤 하는곡이다. 원래는 열두곡이 포함되어있었으나 사계절을 묘사한 첫 네곡이 자주 연주되며 현재와같이 4개의 곡이 사계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비발디가 직접 썼다는 설도 있는 짧은 시 (소네트)가 계절마다 붙어 곡을 설명하고있다. 서울의 지하철 출발역 안내방송에 '가을'의 첫 악장을 사용하고있다는 재밌는 얘기. 아마도 온갖 색채의 단풍들이 눈앞에보이듯한 바이올린 솔로의 유려하고 선명한 기교로 경쾌히 묘사되는 스토리라는 주제라서 지하철역의 바쁜걸음들에 경쾌함을 실어주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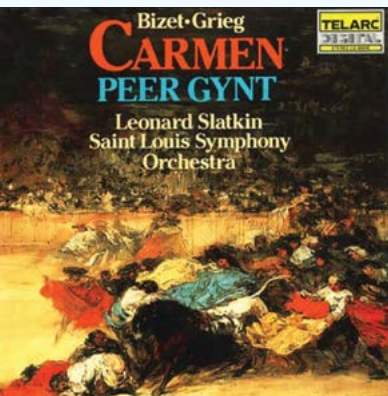
제1악장: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춤과 노래로 흥겨운 잔치를 벌인다

제2악장: 시원한 가을바람이 찾아들어 마을사람들은 평화롭고 달콤한 잠에 휴식한다.

제3악장: 동이트면 사냥꾼들이 엽총과 피리를 들고 개를 거느린채 사냥을 떠나 산짐승을 뒤쫓는다.

Bizet: 'Carmen' Suite No.1 중 Intermezzo

'아름의 여인'으로 알려졌지는 미뉴에트곡, 관현악 조곡인 이곡은 알프스 도데의 <아름의 여인 L'arlesienne> 희곡에 부수음악으로 합해서 쓰여졌는데,



이후 Bizet하면 떠오르는 오페라 카르멘의 조곡으로 사용하여 유명해졌다. 맑고 투명한 플루트의 서정적 멜로디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배경풍경이 눈 앞에 보이는 듯 그윽한 가을의 서정이 느껴진다. Bizet는 카르멘 발표 후 37세의 나이로 과로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카르멘>이 남았다.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2악장 몰다우



「몰다우」는 1883년에 발표된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두 번째 곡에 해당한다. 6곡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교향시는, 보헤미아의 역사와 전설을 배경으로 민족적인 서정으로 씌여진 작품이며, 수도 프라하에 헌정되어 자유를 찾은 체코인들의 환희와 더불어 애국심을 고취시킨곡이다.

2악장은 선율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장 자주 연주되는 명곡으로 몰다우 강과 관련시킨 교향시로 곡주제는 물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하프와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플루트로 표현되며 두줄기강물이 합하여 도도한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는 광경을 그대로 그려낸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첫 번째 곡을 만들면서 겪은 고통이 작품의 수준을 더욱 높였단한다. 강렬한 민족적 색채와 음조로 조국의 아픈역사와 산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작품은, 들을때마다 내조국 대한민국이 생각하며 가슴이 아려온다. 죽기 전에 꼭 들어야할 곡 리스트에 들어가있는곡중 하나이다. 이곡을 다시 들어보며 묘사어의 한 반도 특수한 상황이어서일까 우리의대 표적 민족 민요인 아리랑에서 절실히 느껴지는 '한'의 역사가 깊은곳부터 나를 아프게하며 감동을 더한다.

일생을 통해 음악을 사랑해오시는 음악애호가들 앞에선 그분들의 해박한 음악 지식의 조예와 열정에 음악전공을 했다는 나는 별별떨게된다. 나의 개인적인 음악적 소망(?)을 막연히 내놓자면 언젠가 우리 조국이 평화 통일되는 날, 막혀진 두 물줄기가 서로 만나 큰 하나의 강물이 되는 날을 맞이하는 날,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환희 속에 연주하고싶다.



3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피곤한 몸으로 큰 길가의 가드레일을 넘어가다 발이 스틱과 꼬이며 배낭을 맨체로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와 이마를 다친 사고가 있었다. 이마와 눈 주위에서 피가 수도꼭지의 물처럼 흐르며 바지에 뚝뚝 떨어지는데 길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5분. 낯선 외국땅에서 피 흘리며 누워 두려움에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지난 몇년 동안 하고 싶던 일들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 크게 아쉬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네'란 생각이 들며 맘이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지금 돌아봐도 죽을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고 평온할 수 있음이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생과 사를 넘나든 23일째의 사고는 '나는 다른 어느 순례자들처럼 18lb 배낭을 한번도 부치거나 차를 타고 skip하는 것 없이 매일 평균 18마일씩 걸었다'는 스스로 가진 자부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자

유함과 겸허한 마음을 선물로 주었다. '도대체 난 순례지에서 조차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건지...' 스스로 훈장을 달고 자랑을 뽐가던 내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사고 이후 나는 필요하면 5유로 주고 배낭을 다음 숙소로 보내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고행을 하거나 성취를 위해 온 것도 아닌데... 그제서야 나는 자유롭게 행복 한 '날리리 순례자'가 된 것이다.



비폭풍이 생일날의 카미노 첫날을 축복하더니, 마지막 날에도 내가 좋아하는 비가 선물처럼 오전 내내 내렸다. 첫날 비폭풍은 산티아고로 떠나올 수 밖에 없던 갱년기 아줌마의 마음처럼 '지.랄.발.광'으로 내리더니, 마지막 날은 분무기로 뿌리듯 축축히 온 몸을 적시는 보슬비가 온 마음을 적시는 비가 축축히 내렸다. "Gratitude & Grace"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임을 마지막까지 깨닫게 해준 온 하늘과 우주에 큰 감사 기도가 올려진다. 사고 5일 후 나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고 매일 12시에 있는 순례자 미사에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온 몇천명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새롭게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가 벅찬 감동의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카미노 위의 28일 동안 나는 매일 크고 작은 깨달음의 보물들을 캐어 배낭에 담았다. '단정한 모범생'으로 덮여선 금칠

을 4주 동안 매일 뻘뻘로 다들다보니, 속에 숨어있던 원목의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다양한 모습 - 폭발하는 호기심, 꼬짜같은 엉뚱함, 충만한 모험심과 도전 정신, 자연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예리한, 작렬한 감수성, 삶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 자연 속에서 행복만땅인 길꾼, 자유함을 향한 열망 등-을 만난 소중한 시간이였다.

카미노를 한번도 안 걸은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걸은 사람은 없단다. 카미노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이 길 위에 서는 날을 꿈꾼다. 물론 나도... 그러나 <순례자의 행복> 기도를 중 '행복하여라. 길은 그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 위에서의 배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카미노를 곱히 걸어간다.



한수웅 (의대 55)

콜로라투라 창법의 명수 조수미

조수미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이며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 연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 돈나이며 동양인으로 최초로 국제 성악경연대회를 석권한 세계적인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1988년 그녀를 오디션 한 거장 허버트 폰 카리안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목소리”라고 극찬하였고, 1993년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을 받았으며, 로린 마젤은 한때 “그녀의 음악세계에는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말하였다.

조수미는 1962년 11월 22일 경남 창원시 동읍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조수경이지만 예명 수미로 개칭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마추어 성악가였고 피아니스트였는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꿈을 저버리고 딸 수경에게 피아노를 4살때 그리고 성악을 6살때 배워주었다. 어머니는 “너는 한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만민에게 사랑받는 성악가가 되어라”고 가르쳤다. 하루 24시간 마리아 칼라스로 태교를 줄 정도로 어머니는 수경이의 음악교육에 전념했다. 수경이는 여느 아이들 처럼 유행가나 팝송을 좋아했지만 선화예술중의 유병무 선생이 그녀의 목소리의 독특함을 알고 성악으로 적극 추천하여 주면서 변성기에 그녀의 목소리를 잘 관리해 주었다.

1976년 수경이는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하여 선화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서울 음대 이경숙 교수에게 사사하였다. 이교수는 “너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거야”라고 그녀를 격려하고 가사의 이해와 전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런 결과로 서울음대 입학시험에서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대학공부를 등한시 했다. 온 정열을 자기 사랑에 모두 바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대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성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그런 강철같은 기질이 결국 그녀를 세계오페라계의 정상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탈리아 유학

대학 2학년때 수경이는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입학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입학하였다. 이 입학시험때 피아노 반주자가 오지 않아 수경이가 대신 60명 지원생의 반주를 하고나서 자기 차례에 반주에 노래까지 부르자 교수들이 감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

의 로마 유학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돈 300불 갖고 이탈리아에 와서 고학하면서 하숙집 및 교통문제가 여간 극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맥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병원에서 운반되었는데 심한 빈혈증세임이 발견되었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부족이 온 것이었다. 1986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비냐스 국제성악경연대회(Viñas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에서 우승하여 그 상금으로 먼저 자동차부터



구입하였다.

이때 Carlo Bergonzi, Giannella Borelli 등의 출중한 교수들에게 사사하면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공연하고 방송되고 방영되었다. 그 당시 그녀는 발음하기 힘든 “수경”을 “수미”로 바꾸었다. 입학한지 2년만에 피아노와 성악과를 마치고 (보통 5년이 넘는 과정임) 수미는 Elizabeth Schwartzkopf에게 성악을 사사하고 여러 국제 음악경연대회(트리에스테, 서울, 나폴리, 시칠리)에서 우승하고 나서, 1986년 8월에 베로나에서 열린 유명한 Carlo Alberto Cappelli 국제경연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우승하였다. 이 카펠리 국제대회는 일등끼리 경쟁하는 왕중왕을 뽑는 최고의 대회이다.

카라얀이 발탁

성악가로 입성한 조수미는 1986년 Trieste의 베르디 국립극장에서 Rigolleta의 질다로 데뷔하여 오페라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본 Herbert von Karajan이 1989년에 있을 잘츠베르크 축제에 공연할 ‘가면 무도회’ (Un ballo in maschera)에 Placido Domingo의 상대역 Oscar로 조수미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거장 카라얀은 리허설하는 동안에

타계하여 이 오페라는 결국 솔티(Georg Solti)의 지휘하에 공연되었다. 그러자 도이취 그라마폰에서 1989년 리허설 당시 녹음한 음반을 만들었다. 카라얀은 “그녀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최고의 육성이 다. 한국에서 배웠다니 놀랍다. 한국에도 그렇게 뛰어난 선생들이 있던 말인가?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다”라고 감탄했다. 이때 영국 태생인 소프라노 바르스토우 (Josephine Barstow)가 아멜리아의 역을 맡아 열연하였다. 훗날 도밍고는 “오페라 ‘가면 무도회’ 를 통해 만난 오스카 중 조수미가 최고 역량의 소프라노라는 데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주요 배역

1988년 수미는 Jommelli의 Fetonte의 Thetis로La Scala에 데뷔하고 잘츠베르크 축제에서 피가로의 결혼 의 Barbarina를 불렀다. 1989년 수미는 반국립오페라자와 잘츠베르크 축제에서 가면무도회 의

오스카를 불렀다. 같은 해에 Met(Metropolitan Opera House)에서 Rigoletto의 Gilda로 데뷔하고 나서 그 역을 그후 15년동안 여러번 반복하였다. 1990년 수미는 시카고 리릭오페라좌에서 The Magic Flute의 ‘밤의 여왕’에 데뷔하고, Met에 와서 오스카를 부르고, 코번가든에서 The Tales of Hoffman의 Olympia로 데뷔하고 다시 거기서 Lelisir damor의 Adina와 I Puritani의 Elvira를 불렀다. 1993년 Met에서 Lucia di Lammermoor의 주제역을 거곤히 감당하고 잘츠비르크 축제와 코번가든에서 밤의 여왕에 나섰다. 그리고 같은 해 Der Rosenkavalier의 Sophie로 데뷔하였다. 1994년 수미는 세계 최초로 닉소스의 아리아드네 의 체르비네타의 원본에 대비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12년 작곡하였는데 부르기 힘든 곡이어서 이 곡을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일부를 수정했던 것이다. 이 오페라를 켄트 나가노와 녹음하여 출판하는 참וש성과 실력을 과시하였다. 1995년 Aix-en-Provence축제에서 Le Conte Ory의 Adele역에 출연하였다.

그후 10년동안 세계각지의 오페라좌에서 위에 나온 역을 데뷔 및 반복하는 한편, Minnesota오페라에서 I Capuletti et I Montecchi에 데뷔하고 Spain에서 Il

Turco in Italiana, 보스톤과 핏츠버그에서 L'enfant et les sortilèges, 뉴욕에서 Dinorah에 데뷔하였다. 그리고 2007년 Toulon Opera에서 La Traviata의 Violetta로 데뷔하였다. 이때 프랑스의 르 몽드지는 “요정도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고 평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행사에 세계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르네 플레밍, 안젤라게올리규와 함께 초청받았다.

이런 현상은 연습으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최고 음역대의 콜로라투라 기교를 완벽한 음정으로 빠른 템포로 부르는데 전성기에는 단 하나의 음정실수도 내지 않은 것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런 관계로 헤르베르트 폰 카리얀, 게오르그 솔티, 로린 마젤, 켄트 나가노 등의 많은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Will Crutchfield 교수의 총애를 받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뉴욕 Met의 오페라 뉴스는 “그녀의 노래는 이미 비평을 넘어섰다”고 극찬하였다.

테시투라 및 음역

조수미의 음색과 창법은 서정적이면서 콜로라투라 기교가 완벽에 가까워 조은 서덜랜드의 테크닉을 능가하며, 도니제티의 숨은 오페라를 많이 발굴한 Richard Bonyng의 총애를 받고 있어 그의 지휘로 고음의 프랑스 아리아 13곡 이 데카케이블 Camaval이란 제목으로 나왔다.

특히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두성 (head sound) 활용은 절대적이어서 C4에서 C6에 이르는 음역에서 완벽하게 두성을 내어야 하는데 이 두성과 흉성 (chest sound)의 전환점에서 passaggio라는 두절현상을 겪게 된다. 소프라노의 경우 이런 현상이 C4에서 C5 에 해당하는. 그런데 조수미는 특이하게도 C4위로 두절현상이 계속 두성으로 이어진다. 조수미 자신이 목젓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와 관련이 있는 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성대를 조절하고 있는 thyroarytenoid 근육과 cricothyroid 근육의 작동교체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는 적절한 발성연습으로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Marilee David는 자기 저서 “The New Voice Pedagogy”에서 기술하고 있다.

조수미의 Tessitura는 동료 소프라노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녀의 절대 음역 (vocal range)이 A3에서 F6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Maria Callas나 Joan Sutherland보다 더 높은 고음대를 갖고 있다. 물론 Callas와 Sutherland는 dramatic coloratura soprano로 분류되어 있어 선호하는 레포토리가 어느정도 다를 수 있다.

Joan Sutherland의 경우는 음역이 G3에서 high F (F6)까지 이르고 High F sharp (F#6)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음에 쉽게 오르내렸다. Maria Callas는 오히려 굵

직한 Chest tone으로 유명한데 그녀의 음성은 어둡고 묵중하였고 음역은 C3에서 F6(high F)에 이르는대 최고음에서 늘 불안하였다.

조국에 향한 일편단심

조수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예술가는 결국 영감의 원천을 준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예술가로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나라의 색깔을 풍기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혼이나 생각이 음악을 통해 나타나 사람들의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의 노래를 앙코르로 부르는 경우가 잦았다.

조수미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초기에는 동양 성악가가 거의 없었다. 오페라 배역도 금발의 유럽형 외모가 쉽게 발탁되어 동양인은 불이익을 보았다. 한국을 아는 사람도 극히 소수였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이 빨리 커야겠다. 한국에 좋은 일이 있도록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한국에서 국제적 행사가 있으면 다른 일정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한국으로 갔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매니저와 맞서는 일도 자주 생겼다. 최근 조수미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의 음악학도를 위한 무료 공연을 시행하여 후학양성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는 동안 드레스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인연이 생겼다. 1988년 첫 귀국독창회에 온 앙드레 김은 조수미의 초라한 드레스를 보고 그녀에게 드레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약속은 20년 이상 이어졌고 그간 200벌 이상의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후 그는 조수미의 한국공연 때마다 제일 앞자리 중앙에 앉아서 조수미의 소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였다. 2010년 앙드레 김이 타계하자 조수미는 그를 애도하는 헌정공연을 열고 카치니의 아베마리아를 불렀다. 조수미는 앙드레 김의 한국미가 넘치는 아름답고 이색적인 드레스를 입고 공연하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으며 관객들이 디자이너의 이름을 묻곤 하였다고 술회하였다.

2013년 Decca레이블로 나온 Norma 앨범에서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함께 역할을 바꿔 출판할 정도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가들이 현명하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크로스오버를 탐구하고 있다. 물론 오페라 팬으로 팜페라로 선회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새 영역을 탐구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수미가 얼마전부터 오페라 배역을 맡기 보다는 콘서트 오페라를 선호하는 관계로 아쉽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다. 그러나 오페라가 예술장르의 골든 스탠드 이라고 다른 장르는 오페라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예술분야에 절대적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조수미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극적인 박력이 희석된다고 비평 한다. 그 좋은 예로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을 너무 기교가 넘치게 예쁘게만 불려서 극적 표현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악가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제작가 혹은 연출가 및 음악감독의 의향을 따라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역을 자율적으로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콘서트 오페라를 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우리가 잘 아는 소프라노 Ileana Cotrubas와 Angela Gheorghiu는 공히 루마니아 출신으로 반골정신이 너무 강해서 매니

저 조수미의 마술피리 가 3년안에 3개가 서로 다른 메이저 회사에서 음반으로 나왔고 게오르그 솔티 경이 데카레이블의 본인 지휘음반에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 성악가의 음악을 일반적으로 비평하는 일이 반드시 정답이 아닌 듯 하다. 많은 팬들이 ‘밤의 여왕’의 치솟는 음정에 도취되어 있다.

극적박력, 극적표현 때문에 모든 성악가가 마리아 칼라스를 모방할 필요는 없었다. 각자의 개성과 배경과 창의성이 그의 예술성에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 조수미의 한국적인 배경이 오히려 그녀의 음악에 이색감을 부여하며, 그녀의 가장

"조수미가 크로스오버 한다거나 팜페라로 외도한다고 비평하는 것은 예술인 조수미를 너무나 폄하하는 일이다.

정통 오페라에서 25년 이상 정상을 견지하기 위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독보적 기량을 보여준 성악가로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창의성을 오히려 격려해야 할 것이다."

저 및 음악감독과 번번히 맞선다. 감독이 오페라 해석을 달리하면 “자기들의 환상으로 오페라를 유도한다”고 비난하면서 번번히 공연을 취소한다. 오페라의 해설이 시대적 혹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제작이 나올 때마다 달라지며 무대장치도 대단히 허술해 지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악가들이 현명하게 또 슬기롭게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오페라팬들의 불평이 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우리 한국인의 감정표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왕년의 협전근성을 되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에 걸들어 있는 한국가요적인 발성기교가 그녀의 개성미를 부각시켜주기도 한다. 사랑하는 부친과의 애석한 사별: 일지기 엔리코 카루소는 “내 성대는 공연장으로 가야 하는데 내 몸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 조수미의 아버지는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게 또 슬기롭게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오페라팬들의 불평이 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우리 한국인의 감정표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왕년의 협전근성을 되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의 ‘O mio babbino caro’와 한국가요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 후 청중의 박수가 그치지 않자, “고국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노래를 바친다”고 말하고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눈물을 삼키며 불렀다. 눈물이 서린 조수미를 보면서 샬레극장을 메운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글성거렸다.

정통 오페라에 도전

지난 수십년동안 젊은 세대에 오페라를 소개하고 전파하느라고 많은 오페라가수들이 소위 ‘오페라보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Placido Domingo가 John Denver와 함께 팝송을 부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수미가 크로스오버 한다거나 팜페라로 외도한다고 비평하는 것은 예술인 조수미를 너무나 폄하하는 일이다. 정통오페라에서 25년 이상 정상을 견지하기 위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독보적 기량을 보여준 성악가로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창의성을 오히려 격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400여년 동안 오페라의 새로운 작품이 계속 생겨 오페라계를 오늘날처럼 풍요롭게 만들었다. 여기서 오페라가 변천한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오페라는 15세기말 피렌체의 카메라타에 의하여 처음 태동되어 몬테베르디, 글루크, 모차르트를 거치면서 바로크 음악에서 벗어나 19세기초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등에 의하여 지금 조수미가 애창하는 벨칸토 음악이 성형하였다. 19세기 중엽 베르디 및 바그너의 드라마틱 레퍼토리가 오페라의 절정을 이룩하였다. 그후 베리스모, 인상주의 음악, 민족주의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이 백화만발하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쉐벨르크의 12 음계기법을 구사한 현대음악에 이어 음열음악과 전자음악 및 미니멀리즘 음악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작풍이 우후죽순식으로 계속 생겨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게 일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오페라가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겠다.

사실 조수미 자신이 평범한 성악가로 남기보다 늘 새로운 음악으로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만능 음악인이 되고 싶다고, “전통 음악에서 벗어나 외도에 대해 보수적인 분들은 이력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20년간 정말 자신감을 갖고 했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는 어떻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은 없다”고 피력하였다.

조수미는 2006년 바로크 음반 “Journey to Baroque”를 출판하고, 2010년엔 독일 가곡앨범 ‘Ich Liebe Dich’, 2008년에 스웨덴 민요 ‘Bred Dina Vida Vingar’, ‘Hijo De La Luna’(달의 아들)등 세계적인 가요들을 출판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조수미의 독일어 딕션(diction)이 명료하지 않다는 잡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한 이유

조화유 (문리 61)

지난 10월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전에 이미 가본 적이 있는 서부 유럽은 제외하고 이번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만 둘러보았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 유대인 수용소였다.

2차 세계대전(1939-45)을 일으킨 나치 독일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인 멸종을 시도하다 실패한 얘기는 TV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미 많이 보았지만, 가장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되기 전 유대인들이 사용한 안경, 신발, 식기, 심지어 그들의 머리털까지 실물로 보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들은 불쌍하고 히틀러는 악독했다는 생각을 굳히게 아니라 왜 히틀러가 그렇게 지독하게 유대인 멸종을 획책했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Holocaust(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영화를 보아왔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히틀러와 나치스는 나쁘고 유대인은 불쌍하다는 생각만 했다, "유대인이 독일인의 미움을 살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유대인 학살 이유를 다룬 영화를 본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영화는 전부 히틀러는 나쁘고 유대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

각하도록 영화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들은 대개 유대인 돈줄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Why did Hitler hate Jews so much? (히틀러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증오했는가?)라는 검색어로 Google에 들어가 보



니 엄청나게 많은 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독일의 역사학자 랄프 게오르게 로이트(Ralf-George Reuth)가 6년 전에 쓴 책이었다.

이 책의 독일어 타이틀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Jewish Hatred; Cliché and Re-

ality인데 우리말로로는 "유대인 증오: 통설과 실제"쯤 될 것이다. 이 책에 의하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한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영국 Daily Mail 신문이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시절의 히틀러가 빈(Wien-지금의 오스트리아 수도)에서 살 때 여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유대인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히틀러 모친이 유대인 의사의 실수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심지어 그 의사가 유방암 환자인 히틀러 모친을 성폭행까지 했다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히틀러가 빈(비엔나)에서 미술학교에 다닐 때 짝사랑한 독일 여자가 나중에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격분, 유대인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면 독일 여성과 결혼하여 아리안(독일 민족)의 피를 흐려놓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 멸종을 기획했다는 설도 있다.

히틀러는 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도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카알 마르크스(Karl Marx), 러시아 혁명 지도자 레닌과 트로츠키가 모두 유대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의 정치적 초기 기반이었던 독일 뮌헨에서 1919년 공산주의 정권이 잠깐 등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이트는 나치시대 인물 연구에 권위자로 알려진 역사가인데, 선전과 선동의 귀재라는 요셉 괴벨스 선전상의 전기도 썼다. 유대계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노벨상 수상자)도 러시아 혁명 주도 세력은 유대인이었다고 쓴 기록이 있다고 로이트는 말했다.

<사실설명>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정문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문에는 아직도 ARBEIT MACHT FREI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라는 구호가 그대로 붙어있다.

물론 이런 개인 감정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였다. 히틀러는 유대인 때문에 1차 세계대전(1914-18) 후 독일 경제가 붕괴했고 또 유대인들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1차 세계대전에 하사관으로 참전한 히틀러는 패전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보았다. 중전 직후인 1919년 당시 독일의 민간은행의 약 절반이 유대인 소유였으며 증권시장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신문의 약 절반이 유대인 소유였으며 연쇄백화점의 80%도 유대인 소유였다. 한마디로 독일 경제와 언론은 유대인이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패전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팽배했다는 것이다. 히틀러는 주식시장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를 싫어했다.

히틀러는 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도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 카알 마르크스(Karl Marx), 러시아 혁명 지도자 레닌과 트로츠키가 모두 유대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의 정치적 초기 기반이었던 독일 뮌헨에서 1919년 공산주의 정권이 잠깐 등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이트는 나치시대 인물 연구에 권위자로 알려진 역사가인데, 선전과 선동의 귀재라는 요셉 괴벨스 선전상의 전기도 썼다. 유대계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노벨상 수상자)도 러시아 혁명 주도 세력은 유대인이었다고 쓴 기록이 있다고 로이트는 말했다.

<사실설명>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정문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문에는 아직도 ARBEIT MACHT FREI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라는 구호가 그대로 붙어있다.

최근 Met에서 새로 제작한 Roberto Devreux의 여왕 역에 Sondra Radvanovsky가 열연을 하였는데 그녀의 굵직한 스피노도 음성도 한 몫 했지만 그녀의 분장과 얼굴표정이 연기에 크게 주효하여 오페라의 극적 박력을 극대화하였다. 그녀는 얼마전에 "리릭이나 콜로라투라니 하는 제작에서 벗어나서 오페라의 모든 레퍼토리에 도전하겠다"고 호언하였다. Sondra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수미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얼마전에 영국의 글라인덴번에서 연출한 베르디의 Macbeth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Josephine Barstow가 대단한 열연을 하였는데 여전히 조수미는 그녀를 능가할 수 있는 Lady Macbeth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Tullio Serafin이 "Maria, you can do it"라고 칼라스를 늘 격려했듯이, Herbert von Karajan이 아직 생존한다면 "Sumi, you can challenge it"라고 한마디 했을 것이다.



이미 옆질러진 물

예상과는 달리 국제호텔에서 카네칼론사 일행을 만나지 못한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해 2일 이상을 먹으면 안되는 사라돈이라는 진통제를 4일이상 먹고 달려간 길이였다. 순간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회한들 이미 옆질러진 물이라는 생각에 호텔에 남아있던 다나과 과정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큰 결례를 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할 수 없지요. 추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라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자리에 누워있어도 여러 생각들이 스치니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간 어느 날, 브렌트우드사의 크리스만 부사장이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자 땅이 꺼져라 큰 한숨부터 내뿜은 크리스만 부사장, "미스터리!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리를 다쳐 부득이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리, 아무리 그랬어도 그때는 카네칼론사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정말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크리스만 부사장 설명에 의하면 한국 가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자 매력에 느낀 카네칼론사에서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결정했다고 했다. 더욱이 카네칼론사 임원진들이 회의를 한 결과 한국사람 최초로 자사를 방문한 내가 가장 적임자로 떠올랐던 것이다.

때문에 하나도 가쁘오는 나와 함께 의논해서 한국 지역 6개의 회사를 선정하기위해 방문했던 것이다. 설명을 들은 나는 탈색 그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크리스만 부사장의 말대로 나는 일생의 한번 올까한 큰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까?" 재차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이미 결정되어 기회가 없습니다."

6개 업체에만 독점 공급되던 카네칼론 원사

결국 나는 카네칼론사의 원사 공급 배정을 못받았다. 당시, 카네칼론사의 원사공급 배정권은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는 약속어음같은 것이었다. 설명 가발 공장이 없더라도 배정권만 팔아도 부자가 되었던 시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것이었다. 이후, 카네칼론 원사는

허리병을 도지게 한 텔렉스

몸이 조금 움직이기 수월해지자 일에 대한 욕심을 못 참고 뉴욕으로 건너왔다. 뉴욕에서 지금의 Junee상사 뉴욕지점을 만들고 상주하기 시작했다. 더 큰 시장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가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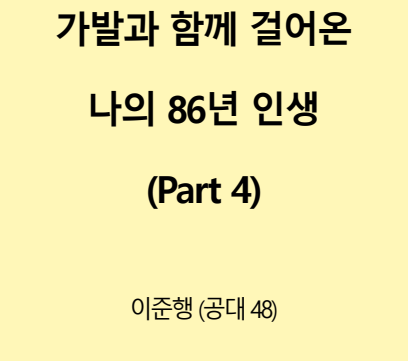
요즘엔 광속 인터넷에 화상회의까지 불편함 없는 통신시설로 인해 최첨단을 걷고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편지나 전보가 일상적인 한국의 통신수단이었다. 그래서 급한 연락을 요하는 경우 텔렉스를 이용했는데 그 덜덜거리는 텔렉스가 또 골치덩어리였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며 무리하자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애 침을 맞고 싶은데. 이 마나면 곳에서 침 전문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여기 저기 수소문한 결과 경희대학교 병원의 이수호라는 사람이 뉴저지에 파견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가자 뉴저지로 빨리 가자!"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간 뉴저지에서 한방의 사인 이수호 선생을 만날 수 있었다.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내 허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수호 선생은 침을 놓기 시작했다.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예정 없던 교환교수로 뉴저지에 온 이수호 선생, 마치 나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 같았다. 그렇게 나는 매일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뉴욕에서 뉴저지로 침을 맞으러 다녔다. 나를 위해 온전해 주는 부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술 후에도 심하게 허리와 척추가 아팠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았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침을 맞으러 다녔다. 이수호 선생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스트레칭과 허리운동을 열심히 해 지금의 몸을 보존하고 있다. 이토록 노력한 덕분에인지 현재 나이 85세인데도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을 수 있고 다리로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동문회나 골프대회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면 모두 감탄할 정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스트레칭하시고 허리운동 하세요. 그 래야 건강하게 삽니다."

일종의 판매 혁명이었던 가발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가보자. 이 무렵 카네칼론 원사가 본격적으로 가발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발 제품 생산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가발은 그전까지만 해도 부자집 귀부인들의 패션 소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지금 집사람이 온전을 잘하는 이유가 그때의 일 때문이다. 수술 후, 한방 침 치료를 추천받고 경희대학교 병원에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치료를 매일 받았다. 지금 계산해 보면 조금 과장해서 수십만대의 침을 맞았을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에게 수술하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연히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의 서울통상, YH, 미방, 다나, 한독, 반도상사 등 6개업체에만 독점 공급되는 바람에 이들 회사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카네칼론 원사를 공급받지 못한 업체들은 이태리계 원사를 들여다 가발을 만들었다.

나중에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YH의 68년도 가발 수출액은 200만 달러, 69년엔 그 배가 넘는 470만 달러, 70년에는 1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해 수출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훈장(장탑)을 받기도 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집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신이 원사공급 배정권을 받았던 지금까지 살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면 매일 넘치도록 풍족한 음식을 먹었을 테고 지금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돌아가셨겠죠. 아마도 하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재물의 복을 덜어 가신 것 같아요." "뭐요? 말이 그럴 듯 하구만! 하하하"

생사의 기로에서 척추수술을 받다

이처럼 큰 일을 겪었던 나는 점차 허리에 통증이 커지기 시작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급히 척추수술 전문의를 찾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만해도 한국에서는 척추수술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기다. "사장님 척추수술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당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시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심보성 박사라는 사람을 찾았다. 보기에도 척추수술을 잘 할 것 같았던 믿음직한 의사였다. 심 박사는 내 척추상태를 보더니 놀라면서 나를 추궁했다.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장 수술해야겠습니다. 급합니다."

나는 일사천리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수술대에 누웠다. 여전히 카네칼론사가 생각이 났지만 눈을 질끈 감으며 잊어버리려 애를 썼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지금 집사람이 온전을 잘하는 이유가 그때의 일 때문이다. 수술 후, 한방 침 치료를 추천받고 경희대학교 병원에 아침 7시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치료를 매일 받았다. 지금 계산해 보면 조금 과장해서 수십만대의 침을 맞았을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에게 수술하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연히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977년에는 96개로 떨어졌다.

인조 가발이 30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공급이 많아지니 경쟁도 치열해져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생산한 인조 가발은 30달러에 불과했다. 가격이 떨어지니 흑인 손님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초에 한국산 인조 가발을 파는 한인 가발 가게가 저소득층 흑인 동네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섰다. 당시에 한국의 가발 제조업체들과 미국의 한인 가발 수입업자들은 흑인 동네에 가발 가게를 개업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확장을 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한인들이 가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심지어 한인 유학생들 중에도 공부부를 포기하고 가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발 제품이 워낙 제품자체가 가볍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이득이 마진이크다는 조건 때문에 한인 사회에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점이 있어 물건 반기가 편해 많은 한인들이 뛰어 들었다.

유학생 출신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사하기 시작

그리고 기역을 더듬어 보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뉴욕에는 약 50개 정도의 수입상(도매상)들이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주로 유학생 출신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 둘 시작한 가발 가게는 중소도시 도심을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뭇 좋은 가게는 한인이 운영하는 가발 가게로 소문이 났었다. 그때 큰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심에 점포를 얻기가 쉬웠던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가발이 대중화되니 흑인 여성 치고 가발 한 두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이 바람에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가발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다. 언젠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지금 뉴욕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가발 장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 미국 내 어느도시 어느 변화가를 찾아도 한국인 가발 가게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소매업계를 석권했다. 이시기에 한일철 잡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컨세션과 페들러 가발 판매상

또하나의 재미있는 기억이 있다. 혹시 컨세션이란 장사를 들어봤는지? 컨세션은 백화점같이 고객이 봄비는 대형 스토어의 한쪽에 매장을 얻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월 매장 총액에서 약 20~25%를 지급하는 방식의 비즈니스였다. 한창 비즈니스 열기가 불면서 컨세션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학생 출신들도 가발 판매에 많이 뛰어 들었고 렌트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컨세션을 선호하기도 했다. 일부 한인들은 변화한 길가에 소위 가발 트리를 걸어 놓는 페들러들도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다. "맨한탄 길거리에 나가보면 횡단보도 앞에 가발 트리를 걸어 놓고 지나가는 흑인 여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사람들 거의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비를 벌여 불요량으로 가발 장사를 시작했다가 큰 도매업체 사장까지 된 사람도 있죠. 가발이 우리 미주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다음 호 계속)

Canadian Rockies 여행기

조동건 (공대 69)

눈 덮힌 정상들의 절묘함과 6월인데도 150m 두께의 빙하며, 아직도 녹지않은 만년설을 밟는 신비감, 또한 어떤 곳은 녹아서 마치 홍수가 되어 끝없이 흘러 내리는 빙하수로 말미암아 절벽같은 바위가 수천년을 닳고 닳아서 구멍이 뚫리고, 자연의 다리가 되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자연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만년설로 덮힌 산들로 둘러쌓인 국립공원 Jasper에서 Sky Tram을 타고 올라간 정상에서 6월에도 녹지않은 만년설을 밟는 신비감, 직접 빙하에서 빙하수를 채취하는 흥분감, 내 60 넘는 인생에 처음이요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Jasper National Park도 장관이지만, 또 하나의 국립공원인 Banff National Park



옛말에 60년 한평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00년 한평생이라고 표현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유명한 노교수는 인생 황금기를 60-75세라고 했다. 비록 지난 60년이 눈깜박할 사이에 흘러가 버렸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60을 훨씬 넘긴 나이인데도 기분은 아직 50대의 정신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학창시절 그리고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틈틈히 방학과 휴일을 이용해서 산과 바닷가에서 캠핑도 가고 등산도 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속에서 젊음을 즐겼지만, 결혼 후에는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한 관광 등 힘든 여행들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내 추억에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여행을 옛 대학동창들과 함께 다녀왔다. 한국에 있는 우리 서울공대 동창(69 학번) 옛친구들의 제안으로 미국도 한국도 아닌 Canadian Rockies를 40년의 우정으로 함께 여행하기로 지난 1월 계획하였다. 그리고 대망의 여행을 위해 나는 5월 말 이곳 Florida 를 떠나 Canada Vancouver 에서 옛 대학동창 5명과 합류해서 10박 12일의 강행군으로 매일매일 숙소를 옮겨가면서 만년설의 Rocky Mountains를 여행하였다.

학창시절 등반과 캠핑은 젊음을 만끽하고 Stress 해소를 위한 현실도피의 여행이었다면, 이번 황혼을 맞이한 60대의 여행은 지나간 옛추억을 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단련의 목적으로,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서 부담없이 떠들면서 마치 동화 속의 여행을 한 것 같다.

아갈 수 있었기에, 정말 추억에 남을 여행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Grand Canyon, Yosemite National Park, Yellow Stone National Park, Niagara 폭포 그리고 Death Valley 등은 자연의 웅장함, 위대함,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한번 꼭 방문해야 할 명소들이지만, 이번에 방문한 Rocky Mountains 도

도 Jasper에 못지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인간의 발자취가 닿지않은 눈덮힌 첩첩 산들의 신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금상첨화라고 이러한 절묘한 산들이 아버지라면, 어머니같은 잔잔한 호수들이 6월인데도 얼음(빙하)이 녹지않고 백설같은 눈이 하얗게 쌓인 Louise 호수, 그리고 emerald 같이 진푸른 녹색

의 Emerald 호수가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같았다.

막상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만 추억에 남을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구나 생각을 하고, 문득 문득 기억에 남는 추억의 장면들을 회상해 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글로서 남겨야겠다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10편의 여행 documentary video가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선물로 날아왔다. 여행 중에는 이렇게 많은 영상이 기록되고 있는줄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마치 한편의 documentary movie 를 보는 기분이었다. 장면 장면에 어울리는 background 음악이며, 그때 그때에 재치있는 comments 등, 그리고 한영의 character 로서 참가해서 감상하는 기분이 마치 영화배우가 된 기분이다.

여행의 즐거운 시간을 회상해 가면서 영상 촬영에 수고한 친구에게 감사하며, 이번 project 여행을 위하여 computer 같이 빈틈없는 여행 계획을 준비한 team 장, 여행 중 식사 담당을 맡은 chef team, 그리고 장거리 교통수단을 맡은 driver team 등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10편의 video 는 영우회란 이름으로 naver cafe의 한 blog으로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도록 영상 촬영 친구가 또한번 수고한 것 같다.

이번 여행을 돌아볼 때 가장 인상 깊은 의미는 이미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건강한 체력으로 효도관광이 아닌 각자의 자력으로 준비된 해외여행이며, 또한 대학을 졸업한지 40년이 넘는 지금 옛 학창시절의 우정이 아직도 계속해서 여행이 있기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황혼의 건강과 번치않는 우정이 얼마나 값진 재산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임을 알고 싶다. 앞으로 100세 인생시대에 뒤지지 않는 건강유지와 Internet 시대에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린 우정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 www.snuua.org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그녀의 남편 묘지를 방문하고서-

안세현 (의대 63)

금년 4월 23일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미주 감리교 여성회에서 주최하는 아세아 전도부인 교육을 위한 선교걷기에 참여하였다. 베다니연합감리교회의 박대성목사의 인도를 받아 Lorraine park cemetery로 갔다 그리고 한 오래된 조그마한 묘비앞에 서게 되었다. 그 묘비에는 Yousan Chairu Pak 이라는 이름과 함께,1868년 9월 21일 출생해서 1900년 4월28일 볼티모어에서 사망했다고 새겨져 있었고,영문으로 I was a stranger and ye took me in 이라는 성경구절(마태복음25:35)도 함께 쓰여 있었다. 그 묘비는 바로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1877-1910)의 남편,박여선의 묘비였다. 박목사는 이번 주가 그의 기일이라면서 아주 작은 책자 한 권을 나에게 주며 자기가 자료를 수집하여 쓴 것이라고 했다. 34page 되는 이 책을 일고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소개 하고자 한다.

19세기말 미국교회에 불었던 선교적 부흥에 힘입었던 Rosetta Sherwood M.D.는 Mount Holyoke college의 Mary Lyon의 연설중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1890년10월 의료선교사로서 조선에 왔다. 로제타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여성들을 묘사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이쁜이'라고 불리는데 결혼하고 아들을 나야야만 '창식이엄나'같이 아들의 이름을 따라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이름없음>은 곧 <존재없음>의 의미이기도 했다.

로제타가 일하던 곳은 <보구여관>이었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의 집이라는 뜻으로 명성황후가 이름을 하사한 조선의 최초 여성병원(후에 이대 부속병원으로 발전)의 2대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화학당에서는 몇명의 학생들을 임신한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와 에스터 부부와 더불어 미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1895년 1월 미국에 도착하여 로제타의 고향인 뉴욕주의 작은 도시 리버티에 정착하게 된다.에스터는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라틴어, 수학, 물리학등을 공부하면서 의대 입학준비를 하였다. 박여선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로제타 선교사의 언청이 수술을 보 조하고 난 후로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 했다.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언청이가 수술 후 새 삶을 살게되는 조선여성들을 보면서 큰 꿈을 품기 시작 했다.

1892년 Rosetta Sherwood는 William James Hall과 결혼했고, 1893년에는 김에스터(김점동)도 박여선과 결혼 했다. 박여선은 윌리엄 홀에 의하여 마부로 고용되었던 기독교로 개종한 언제나 정직하고 온화하며 겸손한 청년이었다. 조선의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벗어나길 원했던 에스터와 조선시대 남성관을 깨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여선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으리라.

1894년 박에스터는 남편 박여선과 함께 로제타 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홀을 따라 그 당시 '조선의 소동'이라고 불렀던 평양으로 갔으나 그곳에서의 선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한달만에 중지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 왔다.

로제타는 아들 Sherwood Hall을 생산했으나 에스터는 미숙아를 생산하여 곧 아이가 사망했다. 신실한 사람 윌리엄 홀



은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894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부상병들을 치료 하다가 말라리아와 발진티푸스에 감염이되어 순직한다. 그의 사역은 비록 짧았지만 평양선교의 개척자이자 고아와 어린이들의 진정환 친구였다. 그의 헌신은 후에 그의 아내 로제타 홀과 박에스터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로제타는 평양의 어머니라고 불리웠다. 남편의 순직으로 슬픔에 잠겼던 로제타는 잠시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에스터는 자신의 오랜 꿈이던 미국에서의 의학공부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1894년 12월 유복자를 임신한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와 에스터 부부와 더불어 미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1895년 1월 미국에 도착하여 로제타의 고향인 뉴욕주의 작은 도시 리버티에 정착하게 된다.에스터는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라틴어, 수학, 물리학등을 공부하면서 의대 입학준비를 하였다. 박여선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로제타의 모교이며 명문인 펜실바니아 여자과대학 입학은 실패했고, 결국 Wome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1910 년 폐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Baltimore에서의 의대 생활 4년은 후견인 스티븐스 부인에 의하면 "성적도 만족할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존경받는 학생이면서 장차 조선 선교에 큰일을 감당할 인물이 될 것임이다"라고 평가했다. 에스터는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회를 했다. 신앙 간증을 하며 교회를 알리고 선교의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미 감리회 피츠버그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는 박에스터의 의대공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학창 시절은 순롭지만은 않았다. 남편 박여선이 폐결핵에 걸려 심하게 투병하고 있었다. 의대 교수 루이스 박사는 그당시 에스터의 삶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실험을 하는 힘든 학업을 해내면서도 밤에는 남편을 지극히 간호하는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반복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졸업시험을 시작하려 할 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훌륭히 의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에스터가 의사가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이가 바로 남편 박여선이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남편상을 깨고 에스터의 의대공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리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던 박여선 그는 끝내 사랑하는 아내 에스터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지못하고 그의 나이33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1900년 11월 서양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는 미국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가 파송하는 의료선교사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에스터는 로제타 홀의 파트너로 한양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광혜의원에서 수천명의 여성과 어린이 환자를 진료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에 전염병이 유행할때에도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약을 전하며 또 마음의 상처, 불안감, 두려움까지도 어루만져 주었다. 박에스터는 조선여성들의 의료교육에도 기여를했다. 미신적이고 잘못된 건강지식으로 인해 병이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몽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보구 여관 내에 간호사 양

성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로제타가 설립한 평양 맹아학교의 운영과 교육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0년 4월 13일 그녀의 10년간의 봉사 생활 끝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짧았지만 빛나는 그녀의 삶을 마감한다. 그녀의 나이 34세였다. 로제타의 아들 Sherwood Hall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스터 이모의 죽음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창 귀하게 쓰임받던 에스터 이모의 생명을 빼앗아 간 질병이며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결핵을 예방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1928년 셔우드는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하였고 결핵 퇴치기금 모금을 위해서도 밤에는 남편을 지극히 간호하는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반복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졸업시험을 시작하려 할 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작은 책자는 '나가는 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조선의 작은 소녀 김정동에게 로제타는 빛이 되었다. 그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녀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동이 결국 박에스터가 되어 조선의 여성들에게 또다시 빛이 되었다. '오늘날 이런 빛의 빛을 진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구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박에스터가 묻는 것이다.

박송수님은 2015년 묘지를 방문하고 그날의 회한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일부를 소개한다.

로레인파크의 파아란 하늘 아래
울지도 못하는 에스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제 조용히 잠든다
33년을 슬피계한 조선을 가슴에 품고.....
묘비여
너는 어찌 서지도 못하고
돌아 누웠느냐
너라도 일어나서 다시돌아올
에스터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이 이토록
말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그저 누워서 하늘만 바라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
안녕히 가지게나....., 점동
그대는 절대로
울어서는 안되네

끝 *묘지를 방문하거나,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안세현(302-463-7224)에게 연락 바람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Table with columns for donation types (e.g., 전회장단 이월금, 총동창회 보조금) and lists of donors with their names and amount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cludes checkboxes for donation amounts and options for scholarship or charity funds.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Registra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email, phone, address, and a QR code for payment.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Large table listing members by region (e.g.,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로키마운틴) and their names and membership status.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1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ape.org, jschung@isoa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리지	
이혁엽 알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1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중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1 명

남가주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광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재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홍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재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환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goodfriendinc.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상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텍사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상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홍혜례 (상대 72)	773-896-7987	hyeryehong@yahoo.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상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 (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mrm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상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 (법대 78)	512-750-4680	hi5christ@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해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지영 (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LA) 3000 W. 6th Suite #317 LA, CA 90020

LA 213-383-2525

Law offices of E. Peter Shin, ESQ.

신응남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무료상담 환영
24시간 연락
무료 주차장

여러분의 골치아픈 법률문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만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대기업의 뉴욕지사에서도 각종 소송사건을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실력있는 변호사 (뉴욕, 뉴저지 & 미연방법원자격소지)

파산(개인/회사)전문/ 모기지, 부채조정/ 각종 민사 소송/방어/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

718-463-3131 (201)941-7969 Fax: (718)463-6789
Email: petershinesq@gmail.com

뉴욕(플러싱):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뉴저지: 12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회장 윤상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Jayone 대표: 이승훈 (상대 74)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elcome to Turbo Air
Your success is Turbo Air's success!



TURBO AIR GROUP

About Us

- > Turbo Air Group
- Code of Conduct
- Mission Statement
- Careers


World Headquarters
 Sales in North America
 (Long Beach, CA)



Selling to 67 Countries

서치원 (공대 69)